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5+6
MAY + JUN
2022 vol.18



특집 아동 청소년 신앙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섬김의 자리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작은 힘을 보태며

청년 시론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의 신앙

문화로 세상 보기 청소년 예술 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ISSN 2671-8731



Contents

MAY + JUNE · 2022

시선

신앙교육, 모범을 보여야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다음 세대 기독교 세계관 교육 비전 나눔 | 신국원 04

특집

아동 청소년 신앙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다음 세대’라는 부담스러운 ‘상투어’(cliché) | 박영주 06

부모들이여, 금수저보다는 그릇을 준비합시다 | 김보경 08

본질을 붙잡으면 대안이 보인다 | 정통령 10

은혜의 감각을 배우는 청소년 교육 | 신동렬 12

‘위드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14

‘하이브리드’ 교회 교육으로 살린다 | 신미영 14

옷장 문을 여는 부모 | 김주은 16

신앙교육은 ‘거리’ 문제이다 | 김수홍 18

사람 사이

유경상 CTC 대표 20

섬김의 자리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작은 힘을 보태며 | 류현모 24



2022. 5+6월호 | 제18호(통권 233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의 신앙 이희승	26
'기독교 세계관' 안경을 만들어주는 공동체 공현석	28
청년일터이야기	
초보 사역자의 사역 일기 정해성	30
이동 청소년 교육의 현장에서 주세진	32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교육 풍경, 과거와 미래 사이 추태화	34
미술을 보다	
청소년 예술 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서성록	36
책을 보다	
왜 하나님은 내가 누구랑 자는지 신경쓰실까? 김병재	38
하나님의 길을 가족이 함께 걸으며 배우는 사랑 교육 이진희	40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윤태수	42
나는 'HOW' 부모인가? 'WHY' 부모인가? 한경란	44



교회 路

사천교회 <온라인 부모교육 세미나>에 대하여 최종식	46
소감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자녀 양육의 지혜를 얻다 이보라	47

온전한 지성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I)	
- '세계관'이란? 신국원	48
2022년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 간담회(2차)	50

소식

독자 한마디	51
사무국 소식	52
관련기관 소식	53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신앙교육, 모범을 보여야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교육에는 왕도가 없다. 뛰어난 교육학자, 존경받는 성자라도 자녀 교육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자녀의 성격, 가정과 사회 환경, 자신의 인격적 특성 등 워낙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교육으로 성공한 것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지만, 한국 청소년 교육은 문제투성이고,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했는데도 아동 청소년 신앙교육에는 실패하고 있다. 어떤 교육전문가도,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도 뚜렷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한국이 교육을 포기할 수 없고 한국 교회도 신앙교육을 단념할 수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방법을 찾고 수행해야 한다.

교육에는 세계 어떤 공동체도 유대인을 능가하지 못한다. 인류역사상 가장 잔인한 박해와 극심한 모멸을 그렇게 오래 당했으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꺾이지 않고 예술, 학문,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어느 민족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성취하고 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다. 비록 많이 세속화되고 분열되었지만, 유대교를 꾸준히 잘 지키고 있다. 물론 역사

와 상황이 그들과 전혀 다른 우리가 그들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성취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유대인들도 지식교육을 무시하지 않지만, 결코 우선적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지식 그 자체보다는 지식을 늘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자질과 동기를 형성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둔다. 즉, 인성교육에 치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은 말과 글을 통한 지식전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교육자의 모범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에도 “본받으라”라는 명령이 자주 등장한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5)고 하셨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고 명령했다. 성경의 신앙교육 방법은 모범을 보여 따르게 하는 것이다.

어린 자녀를 둔 유대인 부모들은 가능하면 유대인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유

명 인사를 자신들의 집 식사에 초청하려 애쓴다. 자녀들을 그 명사에게 가장 가까이 앉히고 자신들은 말을 삼가므로 손님이 가능한 한 말을 많이 하도록 해서 아이들이 경청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자신들이 자녀들에게 '모범'(role model)이 되지 못하더라도 생생하게 살아 있는 다른 우수한 모범을 아이들 눈앞에 직접 소개하는 것이다. 자녀들의 미래와 교육을 위하여 자신들 대신 다른 '롤모델'(role model)을 제시하므로 자신들의 위신이나 자존심을 희생하는 그들의 지혜와 자녀 사랑은 감격스럽다. 자녀들은 초청된 명사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 부모의 그런 사랑과 양보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그런 부모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가르침도 무시하기 힘들 것이다.

탈무드에 충실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밤에 어머니는 촛불을 켜고 아버지는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은 그들에게 미리 주어진 동전을 '유대민족 기금' 상자에 넣는다고 한다. 매주 금요일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하러 오면 그 상자에 모여 있는 돈을 반드시 아이들 손으로 기부하도록 한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쉽게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조사했던 한 교육학자에 의하면 그 청소년들의 부모들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일관성 없는 훈육'(erratic discipline)이었다. 그것은 신앙교육의 실패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신들의 권위나 자존심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자녀들의 존경을 받을 때 비로소 말로 하는 훈육도 먹혀들 수 있다. 그러나 사랑과 관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신들이 정직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고 훈육에 일관성이 없으면 자녀가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신앙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교육도 효과가 날 수 없다. 자녀를 직접 속이거나 억울하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고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신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모가 시킨 대로 행동했는데도 책망하거나 벌을 주고, 금지한 것을 했는데도 벌을 주지 않으면 자녀는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다. 부모의 참 의도를 몰라 당황하다가 마침내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야 부모든, 교역자든, 주일학교 교사든, 교육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철저히 정직하고 신실하되 일관성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신앙교육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최근에 시행된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18.1점으로 천주교 65.4점, 불교 66.3점보다 두드러지게 낮고 과거보다도 더 낮아졌다 한다. 비록 전적으로 공정하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사회로부터 그런 수준의 불신을 받는다면 한국 개신교인들의 도덕성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실하다. 이런 수준의 신뢰도로 과연 아동 청소년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아동 청소년 신앙교육이 성공하려면 성인 교인들의 신앙이 먼저 건강하고 성숙해져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기아대책이사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다음 세대 기독교 세계관 교육 비전 나눔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이번 호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앙의 전수엔 제3세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앙이 명목화 하기 쉬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무관심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복을 세속화시켰지요.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의 계획을 위해 택한 가정에서도 3세대에 신앙 전수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4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주의를 기울여 할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시선>은 본을 보이는 신앙교육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바울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교육에서 배울 점으로 인성교육을 꼽았고요. 무관심과 일관성 없는 교육이 실패의 원인임도 일깨워 줍니다.

'특집' 글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앙교육의 지혜들입니다. 박영주 교수님은 '코로나 19' 상황 아래 작은 교회 주일학교가 공동체적 돌봄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한 경험을 제시합니다. 김보경 교수님은 유산이라는 차려진 밥상 위의 수저보다 그릇(정체성과 습관)을 물려줄 것을 권합니다. 정통령 목사님은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 교회가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다음 세대 목회의 본질임을 인식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신미영 전도사님은 '코로나 19'를 거처가며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하이브리드 주일학교 교육 방법을 알려줍니다.

청소년 소명 교육에 전념해온 신동렬 목사님은 관계 속에서 성숙해가는 은혜를 선물로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김주은 선생님은 교회가 부모의 신앙교육에 든든한 원군이 되어줄 때 용기를 얻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김수홍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신앙 성장을 돕는 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이라 알려줍니다. 학회의 감사로 섬기시는 류현모 교수님은 참 가정적인 학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권의 기독교 세계관 책을 따님과 함께, 그리고 아내와 함께 내셨습니다. 늘 잠잠히 동역회와 학회의 동역자로서 계십니다.

'사람 사이'에서, 유경상 대표님은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CTC)를 통해서 오랜 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교육 운동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흔히 대학생과 지식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온 것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확장하는 일을 개척하여 성장시켜 온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도 교회와 교육의 현장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자 과정을 개발하여 교육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론’에서는, 이희승 자매가 할머니의 야식과 옛 날이야기로 전해지는 4대째 신앙 유산을 생생하게 전해 줍니다. 공현석 형제는 대안학교 교사로서 신앙교육, 특히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서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나눕니다. 정혜성 자매는 사역 시작과 더불어 맞닥뜨린 ‘코로나 19’ 상황 가운데 주일학교 목양의 경험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중요성 인식을 소개합니다. 주세진 형제도 교사로서 학교와 교회에서의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나눕니다.

‘영화와 예술을 보다’에서, 추태화 교수님은 <죽은 시인의 사회>가 보여주는 교육계의 현실과 이를 넘어설 기독교 교육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서성록 교수님은 오늘의 문화 예술의 영향이 혼자 버텨 내기 불가능한 오늘의 세상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예술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를 통해 영적 분별력과 더불어 공감 능력을 갖추는 것을 돕는 교육이 절실함을 역설합니다. ‘책을 보다’에서, 김병재 선생님은 성의 문제를 진솔하게 다룬 <왜 하나님은 내가 누구랑 자는지 신경 쓰실까?>를 소개하고 평합니다. 이진희 사모님은 <길 위의 학교>가 보여주는 가정 신앙교육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파커 팔머의 <배움과 가르침의 영성>은 신앙교육에 관한 걸작입니다. 윤태수 선생님은 그 내용 소개와 함께 얹은 곧 사랑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찾게 되는 신앙 공동체의 길을 소개합니다. 한경란 소장님도 교육 방법에 매달리는 부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낳고 기르느지를 케리 토마스의 <부모 학교>를 통해 돌아보게 해줍니다.

<교회로>에서, 경상남도 사천교회 최중식 목사님이 온라인 부모교육 세계관 세미나를 진행한 결과가 아

주 좋았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후속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어 이를 준비 중임을 알려주어 저희 사역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보라 집사님은 자녀의 교육은 물론이고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 일상에서의 모든 일에 바른 관점 정립이 중요함을 깨달은 간증을 주십니다.

금번 호부터 제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뿌리를 소개하는 내용을 네 차례 연재합니다. 그간 편집위원회에서 제기된 요청에 답하는 기획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역사가 40년을 넘었기에 당연시하게 되는 기독교 세계관 관련 인물들을 소개하는 동시에 관련 개념들을 쉽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그 첫 마당을 엽니다. 편집을 위해 위원들과 모일 때마다 <신앙과 삶>은 지혜가 모이는 장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든 분께도 동일한 관심과 나눔을 기대합니다. 동역회의 미래인 소장학자들이 선배 학자들과 함께 진행한 2차 모임도 그런 기대를 더욱 부풀게 합니다. 금번에는 친교를 넘어서 각자의 연구 속에서 신앙과 통합을 모색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져 의의가 깊었습니다. **FAITH & LIFE**



✍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다음 세대’라는 부담스러운 ‘상투어’ (cliché)

박영주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교 교수, 동역회 이사)



지난 2년 반 동안 온 세상의 발목을 잡아온 ‘코로나 19’ 시국이 서서히 종료되어 가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염려와 불안이 크다. 언제나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지금처럼 기독교 공동체 안팎으로 회의적인 시절이 또 있었는가 싶다. 멀리, 또는 크게 볼 필요 없이 주일학교 교육 문제만 해도 누구도 그다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지 못하니 말이다. 각종 주일학교 관련 통계들을 볼 때마다 막막한 심정이 되는 사람이 어찌 필자 뿐일까?

목회데이터연구소에 의하면, ‘코로나 19’ 시대에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뽑은 어려운 점 1위가 다름 아닌 ‘다음 세대 교육 문제’였다. 교회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는 ‘코로나 19’가 초래한 어려움은 아니다. 훨씬 이전부터 저출산 시대와 맞물려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사라

지고 있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아이들마저 ‘코로나 19’의 타격 속에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듯 교회에서 집중하지 않는다. 예배의 자리에 영혼이 가출한 듯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곤 한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탓할 수는 전혀 없다. 같은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비난받았다고 5명 중 1명이 응답했고, 그들 중 절반 정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가장 흔한 ‘상투어’(cliché) 중 하나이면서도 정작 그 아이들에게 안전한 신앙 기반을 제공하지 않은 책임을 도대체 누가 져야 할까?

어느 날 그 책임의 무게가 필자에게도 다가왔다. 작년 11월, 40명 남짓한 교우들과 시작한 개척교회에서 만난 각기 학년이 다른 12명의 아이들이 바로 그 무게의

실체들이었다. 교육 전담 부교역자를 둔 교회 형편이 아니었다. 그 아이들의 부모를 비롯한 몇 안 되는 성인들 중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차출할 수도 없었다. 상황상 교회를 세우고 예배의 기초를 쌓아가는 일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라고 잠깐 생각했다. “30년 이상의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학 박사 학위에도 어린이 책 작가 정도면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교만하고 무지한 생각으로 아이들을 풀어보겠다고 나섰다.

일단 매주 아이들 모두가 즐거워할 만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준비해주는 것에서 시작했다. 교회 개척 이후 성탄절과 부활절을 같이 보내면서 우선 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절기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괜찮은 듯 보였다. 일단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는 듯 했으니 말이다. 게다가 놀라운 축복도 경험했다. 지역 공부방을 주일에만 무상으로 사용하는 교회에 무슨 공간이 넉넉했겠는가? 그런데 바로 앞에 위치한 태권도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잠깐의 성경공부 활동 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놀았다. ‘코로나 19’ 때문에 노는 공간과 기회를 잃어버렸던 아이들은 부모님 예배가 마치길 기다리는 10여분의 놀이 시간을 꿀처럼 탐닉했다.

잠깐 자만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고민이 깊어 가고 있다. 주일학교 운영을 매주 임기응변식으로 해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존 주일학교 교재들은 우리 상황과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만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그래도 사실상 필자는 믿는 구석이 좀 있다. 굳이 주일학교에서까지, 특히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라면 굳이 학년을 구분해서 교육할 필요는 없다고 믿는다. 예전 대가족 속에서 자라던 아이들처럼 교회에

서라도 서로 어울려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또 어린 시절 마을 교회 권사님, 집사님 댁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밥 얻어먹고, 가끔 용돈도 얻으며, 실컷 놀곤 하던 기억이 필자의 신앙 여정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이제 초소형 개척교회의 울타리를 조금 낮고 넓게 치고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는 ‘상투어’로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신앙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받아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내일이면 우리 교회가 처음 맞는 어린이 주일이다. 12명의 소중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 나는 의지를 동원하여 희망을 노래한다. 굳이 시스템을 만들지 않거나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도 우리가 보호하고 같이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복음의 노래를 삶으로 전해주어야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박영주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교 교수이다. 미국 컬럼비아인터내셔널 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전(前) 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로도 섬기고 있다.

부모들이여, 금수저보다는 그릇을 준비합시다

김보경 (전주대 교육학과 교수)

우리 시대 부모들은 자녀에게 금수저를 물려주지 못해 안달이다. 금수저는 영어에서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에서 차용한 말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은 숟가락을 신분증처럼 가지고 다니며 자신이 토지를 소유한 계급임을 보여주곤 했다. 금수저가 아니기에 느꼈던 박탈감은 중세 유럽부터 시작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에도 계속되는가 보다.

금수저든 은수저든 명백한 한 가지 사실은 부모가 충분히 가진 것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점이다. 내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어야 자식에게 상속시킬 수 있다. 음악인들 알고 보면 부모 중 한쪽은 취미로라도 음악을 한 경우가 많다. 식사 매너가 있는 부모를 둔 자녀는 음식을 씹을 때 수저를 내려두고 손을 식탁 아래로 내린다. 나에게 충분하게 넘쳐나서 의식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 때 상속은 문화처럼 자연스럽게 전수된다.

정체성

인간은 하루에 3만 5천 번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한다. 이중 약 1% 만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99%는 직관을 사용한 ‘Fast thinking’을 따른다. 이때 우리는 피곤한 의사결정에 뇌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단순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이때 정체성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평소 자신을 ‘초밥 킬러’라고 인식하는 사

람은 새로 생긴 동네 초밥 집에 눈길이 자동으로 간다. 부모는 아이에게 ‘사춘기’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아이의 못된 행동을 슬쩍 합리화한다. 자신을 ‘수포자’로 인식하는 학생은 수학 공부 안 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빠르게 정당화한다. 그래서 ‘흙수저’라는 정체성을 함부로 인정해서도 함부로 부여해서도 안된다. 소중한 한 인생의 99%에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저보다 그릇을

부모가 가장 쉽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돈이다. 상속 세나 증여세가 있지만 그것도 결국 돈이다. 반면 지적 유산을 물려주기란 쉽지 않다. 일찍부터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 의사 부모나 변호사 부모가 의사 자격증이나 변호사 자격증을 자녀에게 물려줄 순 없는 법이다. 고학력 전문직 부모들이 일찍부터 자녀 교육에 매달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고소득도 고학력도 아니어서 물려줄 수저가 없다면? 차려진 밥상에 없기만 하는 수저를 주느라 애쓰기보다는 좀 더 담대하고 배포 있게 그릇을 물려주는 것은 어떨까?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

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답후 2:20-21)

성경은 금, 은, 나무, 흙 등 재료가 무엇이든 자신을 깨끗하게 가꾸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고 한다. 그릇을 관리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 정체성은 무의식적 선택 또는 일상의 반복된 습관으로 표현되고, 습관의 반복성은 다시 정체성으로 굳어진다.

습관 형성을 통한 정체성 물려주기

금수저를 물려주지 못해 안달하기보다는 일상의 기록하고 깨끗한 습관 형성을 통해 아이들에게 귀하고 선한 일에 사용되는 그릇을 만들어주자. 오래된 일이지만, 미국 교육부가 모범가정으로 선정하였던 고팡림, 전해성 박사 부부는 남편이 롱아일랜드 대학 출장을 위해 새벽 3시 52분 기차를 타야 하는 시절, 가족 모두 새벽형 인간이 되어 새벽 3시에 가족 식탁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이 부모는 유대인 가정교육 방법을 응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정 안에서 실천하며 여섯 자녀 모두 미국 주류사회 리더로 키워냈다. 박사 부부의 거창한 성공 사재가 아니어도 좋다. 손끝이 심심해도 자녀들 앞에서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하루 한번, 안되면 일주일에 한 번은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으로 예의와 격식을 갖춘 가족 식탁 교체 가지기, 자녀와 대화할 때 눈을 보고 경청하며 존중하기,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섬기기 위해 매일 30분 유산소 운동 또는 10분씩 근력 운동을 하여 몸을 단련하기 등의 일상 습관은 곧 부모 자신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그릇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고귀

하다. 그런데,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원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할 때 부모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갈등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왜 나만 해야 하나는 말을 들을 각오를 해야 한다. 자녀가 게임중독에서 독서광으로 빠르게 변화하길 원하는가? 자신의 진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진하길 원하는가? 말로 하지 말고 보여줘라. 인간은 외부 세계의 70% 이상을 ‘시지각’(visual perception)으로 처리해버린다. 즉, 귀가 아닌 눈으로 배운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많이 보여준 부모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그들의 행동은 대담하다.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다(행 9:15). 바울은 복음을 질그릇 속의 보배라고 했다(고후 4:7). 우리도 이제 손가락보다는 좀 더 큰 그릇에 관심을 가져보자. 금과 은이 아닌 토기장이의 질그릇도 좋다. 흙이 왜 나쁜가? 천연적(Organic)이어서 좋지 않나? 재질이 뭐든 그 안에 좋은 것, 능력 있는 것을 담으면 된다.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선한 그릇은 배고픈 무리에게 퍼주어도 계속 차오르는 열두 광주리와 같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그릇의 정체성을 물려주기 위해 부모된 우리가 먼저 깨끗하고 단정할 일상의 습관으로 빚어지자. **FAITH & LIFE**



 글쓴이 김보경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고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재직하며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학교수업 설계를 위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이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교육본과장, 현재 대전 산성교회 집사로 부모학교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본질을 붙잡으면 대안이 보인다

정통령 (김천 더세움교회 담임목사)

처음 ‘코로나 19’를 경험했을 때 느꼈던 감정은 ‘당혹감’이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이 제한되고 비대면 접촉이 확산되었다. 당연히 목회에 대한 염려와 막막함이 커져갔다. 하지만 이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니, ‘코로나 19’ 시기는 그동안 강조했던 목회적 가치를 선명하게 각인시킬 기회였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책임지고 교회는 부모의 신앙교육을 돕는다.

위 문장은 필자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부단히 외치던 목회의 가치였다. 하지만 목회자의 마음과는 달리 성도들에게는 공허한 외침으로 다가왔다. 부모가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당위성은 이해하나 그것이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사역은 신앙교육 현장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되찾게 만드는 기회였다. 부모들은 더 이상 신앙교육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다. 매주 자녀의 온라인 예배를 들어주며 부모들이 함께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말씀 나눔과 활동을 부모가 가정에서 진행했다. 특히 여름과 겨울에 진행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최고의 기회였다. 교사 강습회에 부모가 참여하면서 신앙교육의 적극적인 참여자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부모가

가정 안에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교사는 맡겨진 자녀의 상황을 부모와 긴밀하게 나눴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나눈 나눔의 내용을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소통을 도왔다.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현장으로 이끈다.

최근 젊은 세대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보면 ‘가치 소비’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조금 더 소비하고,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드러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소비라면 어느 정도의 지출은 감내하는 것이 ‘가치 소비’이다. 이러한 모습이 젊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안에도 묻어나고 있다.

성도들 역시 나의 작은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동참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함께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웃 섬김 사역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제공하였다.

‘코로나 19’ 기간 정말 많은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지역 상인들에게 위문품과 편지 전달하기, 미혼모협회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생필품 박스 제작하기, 저소득층에게 연탄 배달하기 등 ‘코로나 19’ 기간 동안 ‘더세움’의 섬김이 닿은 곳이 국내외의 70여 곳에 달한다. 이 사역들은 모두 가족 단위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전달 물품을 가족이 함께 모여 포장을 하고,

편지를 쓰면서 제작했다. 다음 세대들이 준비한 물품을 직접 대상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부모 손에 이끌리어 참여하던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최근 진행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사역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었다. 스스로 직접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국기 스티커를 제작하여 성도들에게 배부하며 함께했다.

다음 세대들은 사역에 동참하며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경험한다. ‘코로나 19’ 이후 가정의 기능과 역할은 더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교회는 가정이 신앙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기를 제안해본다.

먼저 부모들을 채워주자.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집필한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2021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바른생활 루틴’이 꼽혔었다. ‘바른생활 루틴’은 ‘코로나 19’로 인해 생활과 업무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자기 관리에 대한 욕구가 커져 스스로 바른생활을 추구하며 정해진 생활 루틴을 지키려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요즘 성도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제공해줄 수 있을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을까? 기독교 세계관, 자녀 교육, 부부 관계, 가정 생활, 직장, 소명 등 부모 세대가 고민하는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게 시간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의 회복, 남성과 여성 회복의 자리를 마련하며,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 시기 부모들이 신앙 안에서 회복되고 배워가니,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이 더욱 수월해졌다. 부

모님이 배움의 자리에 나오니 자녀들도 그 모습에 익숙해지고, 자신들도 배움의 자리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한다. 부모가 먼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녀는 그 모습을 배우게 된다. 자연스럽게 신앙의 전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배움의 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된다.

방법론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붙잡자.

‘코로나 19’ 기간은 필자가 추구하는 다음 세대 목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이며, 가정을 통해 신앙교육이 이뤄진다는 그 본질을 붙잡았더니 다양한 사역의 방법들이 눈에 보였다. 사역의 다양한 방법과 도구들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교육의 본질은 무엇인지 점검해보자. 그리고 각자의 목회 현장에 맞는 방법들을 적용해보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와 가정을 세워가시는 은혜를 경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정통령

김천 더세움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김천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2012~2015), 김천예술고등학교 교목(2012~201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공과 집필위원(2013)을 역임했다. 컴패션글로벌 목회자 세미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 다음세대 지도자 컨퍼런스 등에서 강의했고, 지금은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은혜의 감각을 배우는 청소년 교육

신동렬 (목사, 소명교육개발원 원장)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은혜의 개념이다. 은혜에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다.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선물처럼 다가오셔서 선물 같은 구원, 함께 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다. 일반적인 현대의 세계관이 신과 타인에게 닫힌 상태로 오직 자신의 욕망과 능력에만 집중하여 발전과 성장을 이루려는 모습임을 비교할 때, 은혜의 개념은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은혜의 감각을 상실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을 오직 자신으로만 채우려고 한다. 그 결과, 피로와 불안 그리고 자기학대와 폭력이 발생한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자기 삶의 공간을 오직 자신으로만 채우도록 하지 않으셨으며 관계 속에서 서로를 채우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상품을 소비하고 구입하는 감각의 느낌으로 깊은 우정과 친밀감을 통한 씬을 대체하는 모습, 부족하고 불완전한 자신을 용서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며 오직 완벽주의로만 향하는 모습,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만남 속에서 지나친 통제와 주도성과 더불어 타인에게 승리자가 되려는 욕망, 현재 자신의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결정론 등은 은혜의 감각을 상실한 모습이다.

청소년 시기는 어른이 되는 과정의 시기이다. 여기서 어른이란 생물학적 나이의 어른만을 뜻하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 은혜를 서로 경험하게 하는 성숙한 인격

을 가진 이들이 어른인 것이다.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이루어지는 교육들은 사회에 잘 적응한 생산자가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 교육들은 자신을 발견하여 적절한 직군과 직무를 찾아 그곳에서 생산성을 창출하여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지만, 관계 속에서 은혜를 적용하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못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서 만남은 위험하고 가급적 피해야 할 무엇으로 인식되는 시기에, 은혜의 감각을 익히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또한 생활세계를 잠식한 유튜브를 통해 욕망이 무한히 발산되고 타인을 만남이 아닌 청중으로 전환해 버린 상황은 은혜와 관계의 감각을 더욱 무디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기독교 교육에 은혜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더욱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은혜의 감각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관계 속에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고, 둘째는 수치감이 친밀감으로 바뀌는 경험이다. 이 둘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체험이다.

첫째, 관계 속에서 사건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만남을 통해서 내가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는 삶의 유익과 통찰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자신이 결코 떠올릴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관점과 방법을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지만, 청소년들이 서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경청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물 같은 유익을 경험하는 것도 이에 해당

한다. 나의 문제는 오직 나만의 문제인 줄 알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옆 친구의 이야기 속에 내가 발견되는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이는 친구와 내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경험이며, 어쩌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긴장과 자기방어가 아닌 깊은 이해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발견이다. 그리고 이는 나의 삶의 공간이 오직 내가 다 채우는 것이 아닌 만남과 관계로 나를 넘어선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이 목회자나 교사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자리 배치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수치감이 친밀감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모험과 실수를 나누기 시작하는 데서 비롯된다. 모험과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왜 수치감을 동반하는가? 수치감은 보이지 않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기준점이 사회나 가정 어디에서 형성되었는지 모르지만 나와 타인을 쉬지 않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자신은 기준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실패감과 수치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외부의 압력이 아닌 스스로 원해서 선택하고 행동한 모험과 그로 인한 실수 등은 늘 수치감을 동반한다.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왜 이러한 것을 해서 나의 부족함만을 드러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소 하지 않던 그림을 그린다거나 선물을 사지 않고 만들어준다거나 늘 먹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먹는다거나 등등의 모험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수치감을 동반할 수도 있다. 더욱이, 최선을 다해서 한 공부나 활동이라도 수치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나의 모험과 실패감을 친구들과 나눌 때 수치감이 친밀감으로 바뀔 수 있다. 불완전한 나의 모습은 어떤 기준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야기를 듣고 나누는 이들을 통해 이 모습은 나의 진실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조소 섞인 평가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나의 모험과 실패를 가지 있게 여기는 이들의 존중을 경험하게 된다. 숨겨주었던 나의 수치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다른 사람의 숨겨둔 이야기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 서로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나에게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관계 속에서 선물처럼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통로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타인이 발견하는 문이고, 타인의 숨겨둔 이야기를 만나는 계기이며, 슬픔이 웃음이 되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나 교사가 자신의 수치감을 진솔하게 나누며 모험과 실수를 나누는 이들에게 안정감과 따뜻함 그리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법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이 있다면 권면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관계를 중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도 제공한다면, 실패나 죄책감을 홀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의 관계와 공간이 있음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은혜’라는 의미가 “은혜받았니?”라는 걱정적인 감동으로만 통용되지 말아야 하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경험을 하여 이 시대를 은혜로 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신동렬

현재 소명교육개발원 대표이다. 2003년 우연한 계기로 소명 강의하면서 다음 세대들의 고민을 담은 수십 통의 메일을 받고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 뒤로 실제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과 강의를 시작했고, 소명교육개발원을 세웠다. 충신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고, MF 간사와 제자들교회 청년부 목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TNTQ>, <소명에 답하다>, <청년에 답하다>, <소명교육, 이야기를 바꾸다>, <치치프렌즈>(공저) 등이 있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하이브리드’ 교회 교육으로 살린다

신미영 (경산중앙교회 주일학교 전도사)

2020년 2월 시작된 ‘코로나 19’는 우리의 생활만 아니라, 주일학교의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이제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교육일 것이다.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가 가장 먼저 대구에서 시작되어 필자가 섬기는 경산중앙교회는 기약도 없는 교회시설 폐쇄를 선제적으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곧 지나갈 것을 기대하며, 주일 학교 각 부서의 예배를 녹화한 후 가정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다 보니 사역자 간에 기술적 편차가 나타났고, 일방적인 전달의 한계를 느끼면서 실시간 예배를 위한 영상 장비를 구축하였다. 그러면서 유튜브 생중계 예배가 시작되었고, 학교 역시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되었다. 필자의 교회는 방역지침에 따라 예배 시간을 나누어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코로나 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느새 학생들의 온라인 예배 참여가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점점 학생들의 발걸음은 교회에서 멀어져갔고, 사역자들은 이전과 다른 상황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무엇이든 시도해야 했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온라인 사역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사역을 시작했다. 먼저, 온라인

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신앙교육에 노출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비대면 온라인(ZOOM)으로 심방하며 학생들을 만났고, 현장에서 모이던 학부모 간담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주일 저녁에는 온라인에서 150여 가정이 함께 모이는 ‘온’(ON) 가족 주일학교(가정예배)를 시작하였다. 여름수련회도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하고, 여름과 겨울 단기선교, 그리고 전도 축제까지 온라인으로 시도하며 어떻게든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사역들을 시도하였다.

그뿐 아니라, 방역원칙 안에서 학생들 삶의 현장에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면 사역도 최선을 다해 병행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집에 찾아가 교육내용 패키지를 전달하였고, 사역자들은 아침마다 학교 앞으로 찾아가 등교하는 학생들을 만나는 ‘굿모닝 심방’을 진행하였다. 이 모든 사역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다. “너는 예배자다! 교회는 너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올해 들어 또 다른 의미 있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매일 아침 7시, 필자가 섬기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온라인(ZOOM)으로 모여 함께 성경을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이다. 1월부터 현재까지 10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일 아

침 30분 말씀 읽기로 하루를 시작한 후 등교한다. 성경 읽기 활성화를 위해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도 병행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 토요일마다 모이는 제자훈련을 대면으로 재개하였고, 부모들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기독교 학부모 교실'도 대면으로 시작되어 매주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CTC(Christian Thinking Center) 어린이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한다.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생각 코칭'과 다양한 활동 수업을 하고 있다. 주일학교 공과 시간으로는 교회 교육을 모두 할 수 없기에 주중에 어떻게라도 시간을 확보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주일학교 사역 현장에서 이토록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의 소중함과 신앙생활을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일학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이며 세상 속에 살아야 할 사명자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온라인 사역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예배 현장이 닫히는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대안이었다.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하는 온라인 사역을 하나하나 시도할 때마다 "과연 이 사역이 학생들에게 유익한가?", "가능한 사역인가?", "교회 사역의 본질인가?"라는 치열한 고민도 있었다. 하지만 그저 기다리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었다.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많은 사역의 현장이 닫혔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갈 기회가 되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영혼들을 섬기는 복음의 열정으로 무엇이든 씌름하고 시도하다 보니 길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의 '코로나 19' 팬데믹을 지나며 경

험한 사역들을 바탕으로 교회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일학교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사역'의 활성화이다.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문화 코드를 빠르게 읽고, 분석하여 그들의 옷에 맞는 교회 교육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안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참여하는 다음 세대의 문화를 사역자들이 이해하고, 대면 사역과 온라인 사역의 병행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

둘째, 가정과 교회와 학교의 연결이다.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고, 부모는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교회와의 협력 속에 동역을 하며, 학생들은 신앙과 학업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가지는 사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연대하여 책임 있는 교육을 감당해야 한다.

셋째, 확실한 교육철학이다.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길을 잃지 않는다. 다음 세대 교육은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에 방법론만 찾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구를 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에도 또 다른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명을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함 없이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FAITH & LIFE

글쓰기 신미영



경산중앙교회 주일학교 소년부 전도사이다. 같은 교회 주일학교 디렉터, 사랑의교회, 강남교회, 열방교회 전도사로 줄곧 주일학교에서 사역했다. 안양대 기독교교육과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현재는 영남대학교 교육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 강사교육 과정 중에 있다.

옷장 문을 여는 부모

김주은 (삼일교회 하이세 아카데미 교사)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중 <사자와 마녀와 옷장>은 영국에 사는 페번시 가족의 4남매가 전쟁을 피해 런던 밖에 사는 디고리 교수의 집으로 가, 그곳에 있는 옷장 문을 열면서 모험을 시작하는 이야기이다. 옷장 속 나니아 세계에서 4남매는 모험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사랑을 배우고 정체성을 회복한다. 주인공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주한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함으로 마음의 성장을 하게 된다. 3년 전 우리는 '코로나 19'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전 세계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모든 일상이 멈추고 모임과 이동이 제한되면서 늘 살아오던 '일상'이 '도전'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부모로서 열어야 하는 옷장은 무엇일까?

부모, 옷장 문을 열다

필자는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로서 일반교

과는 학교와 학원에,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 의존하며, 학교와 학원과 주일학교가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해주는 정도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며 지냈다. 마음 한편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다고 애써 위안하며 살아왔던 것 같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팬데믹으로 인해 어떠한 대비를 할 시간도 없이 선생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께 맡기고 있던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맞는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은 멈추어 서서 기다려 주지 않았고,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으며, 부모의 역할 또한 잠시도 내려놓을 수 없었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무엇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던 중, '상황상' 물어 두고 못 본 척 눈을 감았던 '신앙교육'과 '다음 세대 교육'의 문제로 말미암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는 옷장의 문을 용

기 내어 열게 되었다.

옷장 문 뒤편의 세계

옷장 문 뒤편의 세계는 너무나 좁고 막막했다. 하얀 마녀의 저주에 걸려 겨울밖에 없던 나니아처럼, 옷장 문 뒤편의 세계를 본 나는 다양한 이웃집 세계관들이 혼재하여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음을 직면하게 되었다.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 없이 희미하게 나와 자녀를, 가정을, 세상을 바라봐왔다는 것이다. 옷장 문을 열면서 유경상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CTC(Christian Thinking Center)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가 양성 과정 수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수업은 교육과 사회 문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세계관 속에 바른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달리기만 하던 내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먼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4)라는 결단의 깃발을 꽂고, 영역별로 분리했던 교육의 중심에 부모가 서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신앙교육이 문자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교육이 되어 삶으로 이어지려면 부모는 일상을 함께 하는 좋은 모델,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페번시 가족의 4남매가 아슬란과 만나 잃었던 왕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나와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작품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회복하여 준 존재임을 기억할 때, 비로소 삶과 연결되는 진정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신앙교육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부모에게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든든한 동역자는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부모들을 지원해주고, 격려해 주며, 함께 힘을 내어 다음 세대를 품어야 한다. 함께 연대하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다음 세대 교육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옷장 밖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통해 옷장 문을 여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와 부모가 함께 연대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본질적으로 부모를 훈련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임을 인정하고, 충직한 청지기로서 자녀 교육의 주도권을 회복하며, 교회는 예전과 같은 역할에서 시선을 확장하여 가정들이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부모들을 든든하게 지지해줄 때, 자녀들의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리라 믿는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주은

삼일교회 장년 2진 하경목장 소속이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선생님’이다.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의 기독교세계관 지도자과정을 수료하고 ‘하이세아카데미’ 교사로 섬기고 있다.

신앙교육은 ‘거리’ 문제이다

김수홍 (드리미학교 ‘진로와 소명’ 교사)



청소년 신앙교육에 대한 글을 쓰려고 준비하면서, 나의 신앙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되돌아보았다. 여러 선생님이 계셨지만, 그 중 특별히 떠오르는 분이 있다. 재수생들이 모이는 예배 자리에서 처음 만난 어느 목사님이다. 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면 성경 한 장을 묵상하고 적어와서 돌아가면서 읽고, 질의 문답을 나누는 큐티 모임 시간이 있었다. 대략 10명 정도가 모였는데, 분위기가 엄숙하면서도 따뜻했다. 목사님은 본인이 섬기는 영혼들과 그렇게 매주 큐티 모임을 인도했다. 나는 이후,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 결혼하기 전까지 약 12년 동안 매주 그 큐티 모임을 섬겼다.

연세가 아버지뻘 되신 목사님은 놀랍게도 사모님과 의 갈등, 하나님을 의심했던 경험, 인간적인 나약함 등 자신의 신앙과 삶을 너무도 솔직하게 나누어 주셨다. 매년 섬기는 부서가 바뀌면서 교회학교에서 다양한 연령대 청소년 부서 학생들과 큐티를 할 수 있었는

데, 저학년 학생들의 질문이 참 솔직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누구는 지옥에 보내시는지, 왜 기도를 했는데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지, 복음을 듣지 못한 아기나 오지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등. 덕분에 나도 궁금한 것들을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해 큐티 시간 내에 시원하게 답을 다 들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 모든 질문을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본인이 고민했던 내용을 답해주시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해 주셨다. 나는 그러한 모습에서, 질문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믿으려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언젠가 학생들과 “무엇이 자신들의 신앙을 성장시켰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그때 집약된 핵심 키워드는 ‘가까운’이었다. 학생들에 따르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대화하며 신앙이

생기고 성장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민형(가명) 학생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신앙이 없었다. 입학하고 나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다.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선생님 및 친구들과 대화하는 환경 속에서 도전이 시작되었다. 민형 학생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는, 학교를 더 다닐지 말지 하는 고민과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내가 이 학교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기독교 학교에 온 이상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민형 학생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신앙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라는 말이다.

또한 나는 학교에서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들의 복음사경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 복음사경회에는 큰 교회나 여러 단체의 장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오신다. 이 행사는 ‘창조’, ‘타락’, ‘구속’, ‘구속된 삶’이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때도 민형 학생은 같이 지내며 그 생각과 행실을 아는 ‘가까운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가 자기에게 더 와 닿았다는 인상적인 말을 했었다.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말은 현장에서 다른 학생들에게서도 많이 듣는다. 한 학생은 친구들과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마냥 신기하고, 또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게는 중학교 때도 친한 친구들이 있었지만, 신앙과 같이 깊고 진지한 주제의 대화란 쉽지 않았는데, 모두가 서로 신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공부하기 때문에, 비

슷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또한 기독교 학교의 특성상 친구와 붙어있는 시간이 많고, 소수의 학생끼리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많다. 이런저런 이유로, 질문이 생기면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화를 나눌 ‘가까운’ 친구나 선생님들이 있다.

신앙교육의 측면에서 나의 경험과 학생들의 경험은 많은 부분 겹쳤다. 청소년기의 신앙교육은 우선 정기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알고 그도 나를 아는 사이일 필요가 있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질문할 기회도 보장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나는 개인적 과거를 통해서, 그리고 교사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신앙교육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무리의 일원으로 함께 했던 모든 시간에 가장 좋았다고 본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상황도 매우 비슷한 성격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신앙교육의 현장 역시 적은 무리와 동고동락하며, 민형 학생 말대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용서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묻고 답할 기회를 수시로 가졌던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적인 청소년 신앙교육이란 필시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것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FAITH & LIFE**



대 글쓴이 김수홍

드리미학교 ‘진로와 소명’ 교사이자 소명교육개발원 협력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원아삼(Wesley Wentworth)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접한 후 청소년들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신앙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유경상 CTC 대표

유경상 대표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으로,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를 섬겨온 전문가이다. 경북대 학부에서 철학, 캐나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했고, 백석대에서 기독교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2007년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CTC, Christian Thinking Center)를 설립하였고, 기독교 세계관 관련 여러 도서의 저자이며, 현재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과 아세아연합신학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교회, 기독교 학교, 학부모 교육, 홈스쿨링 모임, 선교단체 등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일시 & 장소

2022년 4월 18일(월), 오후 3시 서울대 사범대(10동) 4층 세미나실

인터뷰어

조지혜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정리 & 사진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조지혜 대표님께서도 오랫동안 아동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다양한 현장에서 펼쳐오셨는데요. 그동안 섬겨오신 대표적인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유경상 우선 2007년 처음 시작했던 청소년 세계관 캠프가 있고요.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어린이 세계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총 3년 6학기에 걸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은 부모들을 위한 세계관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부모 세계관 학교'를 시작했지요. 이것은 부모가 교사가 되고, 교사는 부모의 마음으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목회자와 사역자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 즉 캠프나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 지도자 과정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에는 온라인을 통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

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고전 읽기' 프로그램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인데요, <나니아 연대기>, <그리스 로마 신화> 등을 온라인에서 부모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는 모든 사역의 디지털화도 실현하여서, '하이세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온오프라인 어린이세계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이세'는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을 의미합니다.

조지혜 우리 시대 아동 청소년 세대의 특징은 무엇인지요.

유경상 우리 시대 아동 청소년들은 이 디지털 시대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을 모국어로 배우고 살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따라서 신앙교육의 측면에서 디지털 상황을 고려해서 시급히 해결할 문제

가 참 많은 상황입니다. 또 최근 메타버스 등 새롭고 다양한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도 활발하기에,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의미와 역할은 이들을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조지혜 그렇다면 대표님은 현재 한국 아동 청소년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경상 정체성 문제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가 정체성과 소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고 준비하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입시 사교육의 현실과 미디어의 영향력은 다음 세대가 기독교 세계관보다 다른 세계관에 더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고 준비하기가 쉽지 않지만, 교육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조지혜 저도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고,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면서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공감되고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현재 한국의 아동 청소년 신앙 교육은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유경상 교육은 정조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상 주변에만 맴돌거나 방법론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지요. ‘코로나 19’로 아이들이 학교와 교회를 가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난 질문이 있습니다. “학교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이지요. 모두 힘든 이때, 여기서 우리는 현상이나 방법론이 아닌 더 본질적 부분들을 성찰하고 깊이 고민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기간 동안 많은 사역자들이 온라인 교육과 예배에 적응하는 데 정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온라인

이 대세다. 메타버스로 가자”는 것은 좋지만, 그저 트렌드를 따라가는 정도에 그치고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다시 정체성과 소명, 더 본질적으로는 세계관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신앙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계속 악순환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조지혜 대표님은 2007년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CTC)를 직접 세우시고 현재까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전방위적으로 펼쳐오셨습니다. 어떤 구체적 계기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유경상 어느덧 20년이 된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에서 공부하면서 청년대학생을 위한 세계관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서, 졸업 후 청년들의 세계관 교육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킹스키즈’라는 청소년 단체 수련회를 통해 청소년 대상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청년들 대상보다 더 즐겁고 열심히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프랜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의 책 제목 〈How should we then live〉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라고 반응하는 ‘중딩’과 ‘고딩’에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시다. 또 하나는 밴쿠버에서 공부할 때, 하루는 팜플렛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세계관 캠프를 시애틀에서 연다는 광고문이었어요. 그때 첫째 아이 임신으로 만삭이 된 아내와 함께 캠프 장소까지 3시간 차를 타고 가서 참석했지요. 프로그램이 오전 강의, 오후 휴식, 저녁 강의 식으로 그렇게 단순했음에도, 마지막에 참여한 아이들이 5박 6일 캠프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이 변했는지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래서 이것을 한국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나누면 좋겠다 싶었고, 용기를 내서 시작한 것이 청소년 세계관 캠프이고, 이 사역을 더 본격적으로 하겠다 해서 설립한 것이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입니다.

조지혜 아동 청소년 세대의 신앙교육은 이미 교회에서 다양한 방법과 교육자료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기독교 세계관 교육일까?”라는 물음에 뭐라고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유경상 저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왜 그냥 신앙교육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 교육인가? 3R 영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R은 ‘관계’(Relationship), 두 번째 R은 ‘종교’(Religion), 세 번째 R은 ‘실제 삶’(Real life)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교육은 보통 ‘관계’와 ‘종교’에 너무 초점이 있지 않았나 보고요. 반드시 ‘실제 삶’으로까지 통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신앙교육과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지요. 또 하나는 아동 청소년기는 세계관이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신앙교육이 ‘실제 삶’으로 총체적으로 안내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면, 다른 세계관에 쉽게 노출되고 그걸 쉽게 배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다른 세계관들에 쉽게 노출되고 전달되고 영향을 받는가를 분별하도록, 또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실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조지혜 대표님은 아동 청소년 신앙교육과 관련해서 ‘부모교사세계관학교’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과 직접적 참여를 특별히 함께 꾸준히 강조해 오셨습니다.

유경상 신앙이 ‘실제 삶’으로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것

을 강조하는 교육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면 그것을 누가 하면 좋을까 생각할 때, 사실상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주일학교와 수련회 등에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도 집에 갔다 오면 제 자리에 돌아온다는 사역자들의 푸념과 안타까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결국 가정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이 아무리 동기 부여되고 자극받고 일시적 변화가 되어도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이 생각뿐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아가도록 도우려면, 부모들의 주도가 필요하고, 부모들이 먼저 세계관이 바뀌어 기독교 세계관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교사 역할은 일차적 사명입니다.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범과 모델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찌면 우리가 이 중요한 첫 단추를 많이 놓치고 있지 않았는가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부모교사 세계관 학교’였습니다.

조지혜 지금의 한국 기독교의 건강한 다음 세대의 세움, 즉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아동 청소년 신앙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유경상 지금은 ‘코로나 19’ 시국이 끝나는 엔데믹(endemic)으로 가는 상황인데요.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두려워요. 저는 지금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 부모교육이라고 봐요. 동시에 교회 사역자분들도 아이들 신앙교육을 일시적 프로그램이나, 교사 대학 같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과정과 준비된 교육이 필요한데요. 그 중심에 부모들이 있기에 지금 제일 시급한 또 하나는 부모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사실 제일 좋은



마을은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해타산적이지 않고 영성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이 모든 것이 구비되어있기에, 이를 교육적으로 잘 전환할 수만 있다면, 이런 잠재력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서 부모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위한 세계관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구체적 신앙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 콘텐츠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에 관한 교육,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공부하고 꿈을 꾸며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생활을 할 것인가에 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 책으로도 몇 권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콘텐츠 개발과 제공이 시급하고 그걸 또 충분히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교사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지혜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아동 청소년 신앙교육의 현재 위기 상황을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 연계하여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유경상 말씀드렸듯이 콘텐츠와 준비된 교사가 필요하고, 구조적인 변화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조적 변화가 없으면 이 부분은 적용되기 쉽지 않거든요. 우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한 시간 반 정도지요. ‘코로나 19’ 이후로는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에서 TV 보듯 하는데, 이것으로는 안 되지요. 따라서 저는 구조 환경 자체가 다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어도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저의 대안은 가정 신앙교육의 활성화입니다. 특별히 부모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콘텐츠도 제공하면서 돕는 일을 한국교회가 지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봅니다. 요즘 신앙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 중 하나로 1교회

1학교 운동 같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교회는 방과 후 학교 같은 것을 신앙교육의 장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마련하고 거기에 실제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며 교사들을 훈련해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다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조지혜 최근 한국 기독교에 ‘다음 세대’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풍성한데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유경상 제게 하나님께서 최근에 깨달음을 주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全) 세대가 다음 세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각 세대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다른 세대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부모들에게 축복인데,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 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모와 자녀 둘 다 성숙해져야 하고, 둘 다 함께 자라야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모든 세대가 함께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지혜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꾸리라”(행 2:17)라는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전(全) 세대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비전이 떠오릅니다.

유경상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자녀니까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으로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는 비전, 이것을 저의 사명과 비전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부디 그 방향에서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가 한국교회의 신앙교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FAITH & LIFE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작은 힘을 보태며

류현모 (기독교학문연구회 감사,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나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정에서 태어나 미션스쿨인 대구 계성고등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대학동급생이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내와 결혼하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출석했다. 오랜 기간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인생의 혼란스런 문제들로 인해 40대 중반 삶의 터전을 대구에서 서울로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회심을 하게 되었다. 이후 교회와 가정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나, 직장과 사회 속에서는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나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친구가 <Understanding the Times>(2006)라는 노에벨(David Noebel)의 세계관 책을 소개했다. 딸과 함께 이 책을 번역했고, 당시 아내가 다니던 신학대학원의 기독교 세계관 모임에서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적인 세계관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다.

노에벨의 책을 번역할 때, 당시 동역회 회장이셨던 중

양대 김승욱 교수님을 통해 그 책의 한국어 판권을 가지고 있던 출판사 '꿈을이루는사람들'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를 소개받았다. 그 인연으로 <충돌하는 세계관>(2013)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책이 출판되었을 때 '동역회' 총회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는데, 당시 여러 권의 책을 가지고 가서 총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기억이 난다. 당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고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동역회'를 통해 많은 것을 공급받고 싶은 바람으로 함께하게 되었다. '동역회' 총회와 학술대회에 참석하다 보니 기독교학문연구회 감사라는 임무를 맡겨주셔서 수년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섬김이라 하기에는 부끄럽기만 하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중반에 기독교 대안학교 과학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과학교육을 해야 할지 동역회에 질문들을 해 오셨다. 동역회 실행위원장 박동열 교수님께서 질문들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과학전공 회원들에게 요청해서, 의견을 나누고, 각 주제에 대해 답변할 임무

를 분담하게 되었다.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치과 대학에서에서 2015년부터 <세계관의 이해>라는 비교 세계관 강좌를 개설하였는데 그 과목을 강의하기 위해 세계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그것을 세상 속에서 실행하려고 노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관, 과학사, 과학철학, 그리고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하여 대담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그동안 써왔던 글들로 작년 9월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두란노, 2021)라는 책을 아내와 공저로 출판하였다. 이 책은 노에벨의 <충돌하는 세계관>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내용을 줄이고 핵심 요소만 짚어가는 방식을 취했다.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으로 인해 성전(신앙)과 '성민'(聖民)의 삶을 지킬 수 없었다. 그 형편이 바로 다른 세계관들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 기독교의 형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잘 모르는 내용을 질문해올 때 우리는 입을 다물고 뒷걸음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작고 미약할지라도 단기간에 나의 신앙인 '성전'을 지켜낼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성벽과 성문을 완성해야 한다.

'동역회'는 1981년부터 기독교 세계관 정립에 관심을 가진 많은 학자가 참여하여,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정립에 큰 힘을 보태 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정치 환경의 변화에 의해 또 '코로나 19' 팬데믹에 의해 급격히 뒤집어지고 세속화되어 버린 세상의 기준들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세계관은 결국 '삶의 기준' 문제이다. 진리의 기준, 선악의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 정의의 기준 등, 그 기준을 세상의 학문으로부터 가지고 올 것인지, 성경으로부터 가지고 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성도는 이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모른 척 하며 자기에게 유리

한 기준을 각자 만들어 버린다. 우리는 무신론, 진화론, 상대주의 세계관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요즘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그 정도가 더 심화되었다. 학교에서 배운 이런 세계관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성경 말씀으로 화장을 한다고 해도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이념들로 오염된 나의 지식체계를 모두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케 하는 세계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도인 전문가들의 집단인 '동역회'는 각 학문 분야에서 이 시대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즉 인공지능(AI)의 적용 범위, 유전자기위를 이용한 질병 치료와 동식물 변형의 범위 등을 드러내고, 내외부에서의 의견 청취와 학제 간 토론을 통해 목회자, 성도,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성경적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체로 발전해 가길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과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중요성을 전파하는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 운동'에 힘을 다하려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류현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교실 교수이다. 유전학, 후성유전학 분야를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세계관의 이해'라는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한국생명윤리협회, 성과학연구협회에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공저)가 있으며, 역서로는 <충돌하는 세계관>(공역)이 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의 신앙

이희승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박사과정)



교회에 아이들이 줄고 있다. 당장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만 봐도 집 안의 어른들은 나오는데 아이들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오랫동안 궁금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서는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신앙이 잘 전파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현재 한국 기독교의 아동 청소년 신앙교육이라는 문제 해결에 약간의 실마리는 되지 않을까 한다.

나는 요즘 캠퍼스 연구실에서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보통 밤 열두 시 정도가 된다. 그 시간 동네 대부분의 집에는 불이 꺼져있다. 그러나 우리 집은 예외다. 아주 환하다. 그 이유는 할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나에게 밥을 주시는 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생각하신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집에 와서 야식을 먹는 것을 몇 번 보신 후, 이제는 매일 야식을 챙겨주시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하루의 마지막 일과가 되어버렸다. 물론 나는 항상 배고픈 것이 아니기에 배가 고프지 않다고 여러 번 항변하여 보았지만, 할머니는 심지어 내가 자정이 넘어 집에 도착해도 깨어 계셨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나서야 편히 주무셨다. 그렇게 나는 야식을 먹고 할머니가 이불에 누우시면 나도 할머니 옆에 눕는다. 그러면 하루 동안 세상에서 쌓였

던 때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다. 나는 잠자리로 갈 때 할머니 불에 뽀뽀한다. 그러면 할머니는 내 뺨을 만지시며 “내 새끼 잘 자라”라고 하신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특히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증조부가 되시는 할머니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셨는지 너무 많이 들었다. 외증조부께서는 호주에서 온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복음을 듣고 그는 “이렇게 좋은 종교가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셨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교회에 나가시다 성경이 아궁이 불에 여러 번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교회는 몰래 밤에 담을 넘어 다니셨다고 한다. 할머니 이야기의 마지막은 언제나 다음과 같다. “네 신앙은 4대의 신앙이다. 네가 애를 낳으면 그 아이는 5대다.” 사랑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내가 감히 다른 마음을 품겠는가? 나는 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주어야 할 것 같다. “너는 5대다. 네가 애를 낳으면 그 아이는 6대다.” 할머니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나의 친동생, 그리고 사촌들 모두 할머니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신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한때 나의 사촌들이 교회에서 멀어졌던 적이 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던 할머니의 말씀 때문에, 발걸음을 교회로 다시 돌렸다. 한편 엄마는 할머니의 막내딸로서 어렸을 때 내가 잠들 때면 거

의 매일 나와 동생 손을 잡고 오랫동안 기도하였다. 나는 쉽게 잠들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금도 생생하다. 덕분에 엄마가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우셨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나는 어머니를 통해 울음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돈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는 때임을 서서히 배워나갔다.

나의 유년 시절은 구름 없는 날씨와 같았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절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우울증은 나 자신을 너무도 낮은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전에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교실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 장난도 치곤 했는데 우울증 상태 속에서는 친했던 친구들과도 굉장히 어색했고 사람들이 그저 두려웠다. 나는 결국 엄마에게 정신과 진찰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 엄마는 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신앙에 의지하라고 하셨다. 당시 나는 내 문제가 신앙과 관련이 없는 의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에게 서운했다.

그러나 나는 대학교 1학년 여름, 우울의 터널에 갇혔고, 그 끝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전혀 뜻하지 않게 할머니와 엄마의 신앙이 아닌, 나 자신의 신앙을 얻게 되었다. 나는 CCC 수련회에 참석하여 누가복음 11장을 묵상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 11:13)라는 구절을 읽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그 구절이 너무나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느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큰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고통 속으로 이끄셨는지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 아마도 내게 그러한 위기가 없었다면 나는 오히려 나 자신을 믿는 자아를 끝내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간을 맞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또 엄마가 만일 나를 정신과에 데려갔다면 어땠을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약물과 의사를 더 의지하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는 극한의 상황까지 갔을 것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이 세상 것을 의지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도 깨닫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나의 신앙은 할머니와 엄마의 유산이다. 따라서 나는 가정 속 신앙교육의 회복이 현재 우리 기독교의 아동·청소년 신앙교육 위기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에서처럼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장차 내 가족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이와 동시에 명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엄마가 그랬듯이 진리는 바로 성경의 복음에 있음을 나 스스로 철저히 확신하고 그것만을 붙잡도록 가정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음 세대는 모든 가정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할머니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께서 그분들에 이어서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 확신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이희순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다. 외증조부로부터 4대째 신앙을 물려받았다. 연세대 건축도시공학부에 입학했으나,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읽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물리학과로 전공을 바꾸어 학부를 졸업했고,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일산 동복교회 청년이며 유아부 교사와 찬양단을 섬기고 있다. 서울대 기독교대학원생 독서 모임 멤버이다.

‘기독교 세계관’ 안경을 만들어주는 공동체

공현석 (이봄학교 교무부장 교사)

‘세계관’이란 세계를 바라볼 때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말한다. 우리는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본다. 일반 안경과 ‘세계관’ 안경의 차이는 일반 안경은 안경점에서 손쉽게 살 수 있지만, ‘세계관’ 안경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 안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조금씩 만들어진다. 그것도 내가 속한 세계,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말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세계는 ‘가정’이다. 아이에게는 ‘가정’이 곧 ‘모든 세계’가 된다. 그러다가 아이는 커가면서 세계의 폭을 넓혀간다. 어린이집, 학교, 학원, 친구, 교회, 미디어 등. 이 모두가 세계를 넓혀가는 수단이자, 새로운 세계가 된다. 이 세계들을 사회학적으로는 ‘사회화 기관’이라고 부른다.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에 여러 가치를 학습하는 곳이라는 말이다. 아이는 이 사회화 기관에서 학습하며 ‘세계관’ 안경을 만들어간다. 아이는 가정에서 부모가 주고받는 말을 통해, 친구들과의 교제와 교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세계관을 만들어간다. 그런데 만약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이 세계들이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치들을 줄곧 이야기해왔다면, 아이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을까?

얼마 전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였던 <소년심판>을 보았다. 드라마에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는 서로 핏

대를 세우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 범죄자를 만들기 위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장판사. 아이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배석판사. 사실 둘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같지만, 사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어른들이 제때 잘잘못을 알려주었다면, 그리고 아이가 만나는 각 세계가 올바른 가치들을 이야기했다면, 아이는 올바른 가치관 내지는 세계관을 가졌을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신앙공동체였다. 믿음의 가정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 신앙, 유대교, 하나님은 당연한 것들이었고, 자신의 가정에서 미처 채워지지 않는 신앙교육의 부분도 자신 옆의 이웃 가정과 사회 공동체가 채워주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지 않다. 물론 일주일에 한번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 신앙교육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그저 일주일 7일 중 하루, 그것도 2시간 남짓의 교회학교에만 우리 자녀를 맡기고, 일주일의 반 이상이 되는 5일은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 일반 학교에 우리 자녀를 맡기면서 신앙교육과 기독교세계관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기독교 학교’에 보내야 할까? 나는 9대 1로 ‘그렇다’라



고 말하겠다. 우리 자녀가 ‘교회 출석자’가 아니라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 확립된 자녀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많은 부모는 자녀의 지식이 부족할 때 학원을 보낸다. 그런데 왜 신앙이 부족하면 과외를 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물론 신앙 과외를 하는 곳이 없기도 하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혹은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의 마음과 열정을 왜 쏟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독교 학교’를 보내지 않아도 잘 자라는 경우도 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학부모는 자녀를 일반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그 자녀는 기독교 세계관이 확립된 아이로 잘 자랐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건강한 가정 공동체와 가정 외의 건강한 신앙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한 달이 30일이라고 하면, 1일에는 자녀 반에 있는 1번 학생을 위해, 2일에는 2번 학생을 위해, 그렇게 한 달 동안 매일 자녀의 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 모습을 보며 자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자라날까? 엄마의 모습을 통해 중보기도를 배우고, 다른 이의 자녀도 내 자녀와 같이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을 것이다. 즉 ‘가정’이라는 세계를 통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아이의

‘기독교 세계관’ 안경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또 거기에는 주변의 다른 믿음의 이웃 가정이 있었고,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에 또 가능한 것이었다.

글을 쓰는 내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라서 홍보를 목적으로 ‘기독교 학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만한 건강한 신앙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입학 상담을 하며 한 친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했다.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던 나의 경험을 이야기 해주며 “우리 학교가 너에게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함께 알아보자”라고 이야기했다. 아침 Q.T. 시간에 나눔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꽤 있다. 너무 예쁘고 귀한 고백이지만, 막연하다. 거기에 나는 질문 하나를 더 던진다.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같아?”, “어떻게 하는 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걸까?” 그러면 아이들의 생각 회로는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게 ‘기독교 세계관’ 안경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아닐까?

가정이든지, 학교이든지, 교회이든지 아이들에게는 함께 신앙을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삶으로 풀어낼 건강한 신앙공동체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자녀에게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는가? 반문해보기를. **FAITH & LIFE**



 글쓴이 공현석

인천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 ‘이봄학교’ 교무부장 교사이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학부 과정 중 교직 이수를 하여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했다. 현재는 진로·소명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서울 정릉교회 청년이다.

초보 사역자의 사역 일기

정혜성 (위례 동현교회 유초등부 전도사)

나는 교회학교 초등부 전도사 3년 차이다. 섬기고 있는 초등부 아이들에 대해 짧막하게 설명하자면, 4~6학년 아이들이라서 유년부나 유치부처럼 마냥 귀엽기만 한 나이는 아니고, 그렇다고 중고등부처럼 성숙하지도 않다. 귀여움과 성숙함, 순종과 반항이 '적절하게 조화' (?)를 이루는 재미있는 친구들이다. 이 친구들과 함께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가장 큰 변수는 사역 시작과 함께 지금도 진행 중인 '코로나 19' 상황이지 않을까 싶다. 그동안 아이들과 직접 만나서 함께 사역한 시간보다, 그러지 못한 시간이 더 많았다. 물론 요즘은 이전보다 '코로나 19'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렸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가 교회를 떠난 채 돌아오지 않고 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더라도 예전만큼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한다. 온라인 예배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온라인 예배는 긴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각자 편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사역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되었

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든다. 이것은 필자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와 선생님들의 고민일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코로나 19'라는 상황 속에서 교회학교의 지난 모습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가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제대로 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는 이상 세상의 화려한 영상미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교회의 예배 영상은 재미없고 지루한 영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중매체는 '코로나 19'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을 장악하는데 더 쉽고 가까이 나아가는 장을 얻었다. 밖을 나갈 수 없으니 온라인상 프로그램들과 서비스들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이들은 수많은 온라인(OIT, SNS) 서비스를 통해 비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흡수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아이들 삶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좀비 웹드라마 < 스위트 홈>, 또 < 오징어 게임>의 내용을 줄줄 꿰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최근 설교를 들으면서 큰 공감을 했던 말이 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다.”라는 말처럼 입으로 먹는 것만이 내가 아니고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것 역시 나”라는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것을 눈으로, 귀로 먹는가 고민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매일 어떤 것을 눈으로, 귀로 먹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조기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보고, 듣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세계관 교육이 중요한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는 대로 세계관과 가치관이 성립되고 그 세계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일주일에 딱 하루, 주일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듣는 그 시간까지도 빼앗기게 되고 만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많이 노력했다. 줌(ZOOM) 기도회, 매일 말씀 읽기, 주일에 재미있는 활동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등.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때때로 돌아오는 것은 기대와 다른 결과에 대한 좌절감, 의욕 상실 등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면서 깊은 고민을 했다.

“과연 사역자로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이 있다. ‘내’가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는 교만을 버리도록 하셨다.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순종하도록 하셨다. 머리로 는 알지만 실행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할 땐 아등바등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한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어떤 상황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내’가 하려는 교만과 순종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며 사역하는 중이다. 또 여전히 아이들이 가요나 그에 맞는 춤은 열정적으로 따라 하면서 왜 찬양이나 율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고민하며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중이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언제나 바른 정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암흑의 사사 시대에 사무엘을 준비하신 것처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정혜성

총신대에서 신학과와 아동학과를 복수 전공하였다. 현재 총신대 신학대학원(M.Div)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위례 동현교회 초등부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다.

아동 청소년 교육의 현장에서

주세진 (샘물중고등학교 과학 교사)



다섯, 넷, 셋, 둘, 하나, “해피 뉴이어!” 모두 함께 외치는 ‘카운트다운’에는 지나간 한 해의 아쉬움과 새로운 한 해의 설렘이 담겨 있다. 하루, 한 달, 일 년, 무언가를 맺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의 단위 체계가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 감사를 ‘기독교 학교’ 교사는 더 많이, 더 깊이 누릴 수 있다. 한 해, 한 학기, 한 교시, 언제라도 무엇을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며 같은 수업일지라도 같은 날이 하루도 없다. 매일 새롭고 즐거운 긴장의 연속이지만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인 나의 모습에 감사할 따름이다. 무너지는 마음을 꼭 부여잡으며 견뎌야 하는 시간도 있었고, 눈물을 꼭 참고 아무렇지 않게 교단에 서야 할 때도 있었다. “고난이 그릇의 넓이와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라는 말이 무섭게 나의 그릇은 무던히도 깨졌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만 붙들고 버티기도 했다. 그리고 교사로 9년 차를 맞이한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일터에서의 삶을 돌아본다.

지난 4월 고난주간의 끝에 성금요일 예배가 있었다. 평소의 공동체 예배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들의 예배를 세워주느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학생들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곤 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학생이 자는 것인지 무엇을 쓰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해서 이야기해야 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학생을 발견해도 고개가 떨구어지지 않으면 깨웠을 때 억울함

을 호소하기 때문에 “제발 스스로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기다리기도 했다. 이날은 오랜만에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 학생들이 앞에서부터 채워앉다 보니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뒤에 따로 자리하게 되었다. 살필 학생이 없어서인지 성금요일 예배여서인지 찬양의 시작부터 은혜가 가득했다. 그리고 문득 이 상황이 감격스러워 눈물이 났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일터라니! 대학생 때 스키트 지나가며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소한 바람도 흘려듣지 않으시고 이루셨다.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갈 수 있는 예배당이 있는 그곳,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고백하며 믿음이 더해가는 그곳,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매일 성장하는 그곳, 그곳이 나의 일터다.

교사를 하며 얻는 가장 큰 유익은 학생들과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다. 나에게 학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배움터다. “선생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선생님 오늘 머리를 이렇게 한 거 너무 예뻐요, 선생님 수업이 너무 좋아요, 설명을 꼼꼼히 해주셔서 이해가 잘 돼요.” 학교에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먼저 다가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나눠주는 학생들이 많다. “이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고 생각했던 내게 학생들은 마음을 표현하며 깊어지는 관계를 알려준다. 수업 시

간에는 어떻게 하면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지 이것저것 만들어 보여주기도 하고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해보기도 한다. 그런데 수업 후에 학생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오랜 시간 고민하며 준비한 내용보다 수업 시간 건넸던 학생을 향한 시선과 사소한 언어였다. 직접 만들어보았던 구름 발생 실험보다 과학실 가는 길에 관찰했던 구름의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와 질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과학 수업의 목적이려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고 나의 ‘나 됨’을 알아가는 과학 수업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다.

모의교사만 보면 이것저것 질문하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학생이 있었다. 이는 만큼 대답을 해주고 교과 선생님과 연결을 해줘도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학생에게는 공부 방법에 대한 답변도 필요했지만, 마음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틈만 나면 고민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찾아보며 학생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 그러다 문득,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 제목 앞에 선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올해 처음 만난 학생도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부족한 머리를 짜내고 더 해줄 것이 없을지 생각하는데, 하물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도움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실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

인생의 길에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의 순간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을 전환해본다. “학생이 나에게 이런 일을 상담한다면 나는 어떻게 답을 해줄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이상적인 대답, 그대로 내가 하면 된다. 무엇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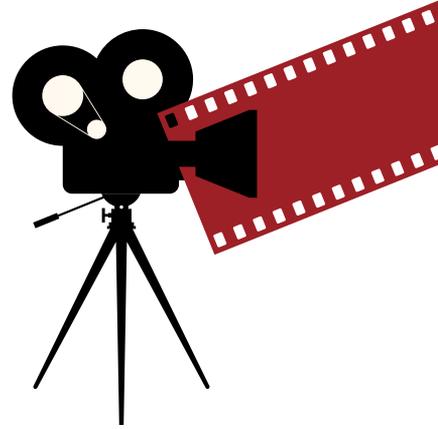
‘매뉴얼’대로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탓에, 학생들이 아침마다 하는 QT도 학교에서 안내해준 그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했다. 교사 1년 차, 목상을 한 글자도 쓰기 어려워하는 10학년 학생이 있어서 함께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았다. 그런데 12학년이 된 그 학생이 자기주도학습 교실에 오자마자 성경책을 꺼내 QT를 써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닦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구나.” 그날 이후 하나님의 때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는 비전을 따라온 이곳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대기권과 날씨’ 수업 준비를 위해 찾은 말씀을 살펴보면,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의 삶 구석구석이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길 소망한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을 이라.”(욥 28:24-26). **FAITH & LIFE**



 글쓴이 주세진

샘물중고등학교의 과학 교사이다.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에서 학부를, 같은 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치료교육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교육 풍경, 과거와 미래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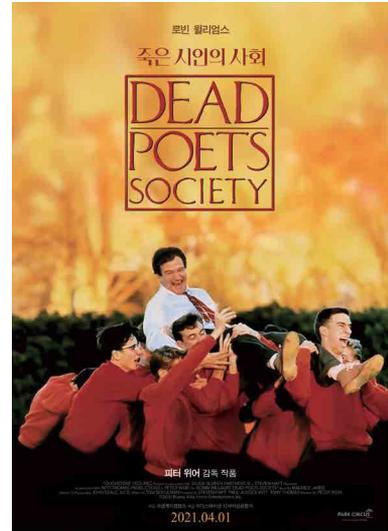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교육은 '백년지대사'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 교육은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백 년 농사라는 표현, 지당하다. 교육이 없다면 미래도 없다. 교육이 없다면 시대는 후퇴하고 인간은 야만적으로 퇴보할 것이다. 교육은 필요불가결한 인간 사회의 동력이다. 교육은 빛이요 불이다. 교육이 없다면 지성의 빛을 꺼질 것이요, 감정의 불은 사그러질 것이다. 그야말로 동물적 약육강식의 본성, '만인의 만인에 대한 늑대'(homo hominilupus) 상태, 죄악의 관영이 만연할 것이다. 교육으로 인해 인간은 인간다움을 옷입고, 교양과 상식, 자유와 책임, 윤리와 자율, 자발성과 창의력, 사랑과 공의 등등을 행하게 된다. 루소(Jean-Jacques Rousseau)와 페스탈로치(Johann Heinrich Pestalozzi)의 자연 교육, 듀이(John Dewey)의 실용주의, 프레이리(Paulo Freire)의 교육 방법론의 실천이론 등은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으나 교육 전반에 총체적일 수 없었다. 더구나 현대에서 미래로 접어드는 시대는 너무 급변하기에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이니 불확정성 시대의 교육에 향한 질문은 여전히 계속된다. 과연 지금, 여기, 그리고 내일에 적합한 교육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전통 보수적인 사립 웰튼 아카데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Dead Poets Society)는 20세기 중반을 비춘다. 웰튼 아카데미는 우수한 엘리트를 길



<죽은 시인의 사회>(Dead Poets Society), 1989년. 피터 위어 감독.

러내는 사립학교. 교훈도 전통, 명예, 규율, 최고를 지향한다. 이 학교는 전통적 교육을 그대로 보여준다. 엄격한 교육 시스템, 엄선된 실력과 교사들, 정교한 교육 내용, 학사관리를 자랑하며 최고의 대학에 합격생을 내보낸다.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학생들 자신은 어떤가?

웰튼의 학생들은 사육장의 가축처럼 살아가고 있다. 실력과 권위로 군림하는 교사, 그들의 일방적 교육 방식에 복종해야 하는 주입식 교육, 성적으로 관리되는 학생들, 그들은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더 높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는 수험생으로 다뤄진다. 근대 이후 교육제도는 반성없이 이 방법으로 질주해 왔다. 우리나라 또한 주입식, 대입 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의 행복감이 점점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행복해야 할 공부



오히려 최고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의 비극이 아닐 수 없는 장면이다.

교사 키팅과 카르페 디엠

이 학교에 영어 과목에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한다. 키팅이라는 이름의 교사. 그의 수업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랐다. 문학 수업 시간에 진부한 이론이 적혀있는 페이지를 찢어버리라 말하지 않는가.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라 유도하지 않는가. 그리고 학생들에게 “현재를 즐겨라”(Carpe diem)를 가르친다. 학생들은 이 유별난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관심을 갖다가 ‘죽은 시인의 사회’를 알게 된다. 여기는 은밀히 일탈과 창조적 파괴를 시도하는 학생들의 비밀결사 같은 모임이었다. 그들은 소로우(Thoreau), 휘트먼(Whitman), 셸리(Shelley) 같은 시인들의 작품을 읽으며 시를 쓰고 낭송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유희를 즐겼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율학습 같은 모임이었다. 키팅은 학생들에게 성적보다는 공부의

즐거움을, 삶의 수단보다는 목적을 일러주었다. 문학을 통하여 아름다움, 낭만, 이상 등에 눈을 뜨게 하였다. 열린 교육에 학생들은 환호했다.

기독교 교육의 대안을 기대하며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강요를 못이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고, 키팅은 교사직을 내려놓게 된다. 학생들은 교실을 떠나는 선생님을 바라보며, 책상 위에 올라 스승을 배웅했다. 이 장면은 교육의 혁신을 갈망하는 학생들의 열정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 자신인데, 그동안 학생들은 교실과 책상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다. 교육 혁신,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2020년대, 급격한 과학기술 변화는 코딩(Coding), 인공지능(AI), 메타버스(Metaverse), 온라인 교육, 디지털 편중의 교육으로 인간의 기계화, 비인간화, 인간성의 파편화 등이 더욱 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학생들도 X, Y, Z, MZ 세대 등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육체 외에도 정신, 마음, 영혼을 갖고 있는 온전한 인간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정립될 수 있는가? 국가 정책도 전통적 교육 방식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의 지혜로운 시대 분석과 종합적 교육 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추대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고, 최근 은퇴할 때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 예술 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필자는 미술대학에 입학했을 때 전공에 대한 기독교적 자세를 숙지하지 못한 채 실기실과 강의실을 오가며 현대미술을 배웠다. 신나는 시간이었으나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문화명령과 문화변혁론 등을 알고 있었더라면 젊은 시절의 방향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지금은 문화예술의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심대하다. 혼자 버텨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힘이 막강하다. 한때 기독교적 가치에 지배를 받던 문화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심각한 영적 도전 가운데 하나가 된 셈이다. 우리의 반응은 거기에 참여해서 바꾸든지 또는 외면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분명한 사실은 외면한다고 해서 달라진 점이 없다는 사실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처럼 현재로서는 참여하는 길이 선택지로 남아 있다. 그냥 뛰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목적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 활동으로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문화의 전도된 양상이다. 젊은 세대에게 세상과 신앙의 관계, 문화와 복음의 관계를 가르치고 삶의 현장에서 소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팁을 주어야 한다. 요컨대,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에게 성경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해 무분별한 문화의 수용자가 되기보다 비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 영적 분별력도 생기고 왜 그들이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특질을 충분히 숙지하고 향유하는 것 그리고 그런 성찰 없이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로크마커(Hans Rookmaaker)는 예술의 영역도 예외가 아님을 이렇게 밝힌다.

“예술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큰 기쁨을 주고 삶의 아름다움을 증진하기에 우리 삶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것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과 접촉시키고, 따라서 현대미술을 통해 우리는 동료 인간들의 노력과 우리 시대의 정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현실의 모든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주신 선함에도 존재하고 심지어 죄와 죄악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에 대한 우리의 통찰을 깊게 해줄 수 있다.”

예술은 얼마나 무수한 일이 사회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준다. 물론 성숙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세상에는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시하게 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훈련받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줄 수도 있을 것이



박수근, 노년의 행상, 캔버스에 유채, 31.5×41.0cm, 1956-1957년경.

다. 인간 문화가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그 문화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하나님 형상의 흔적이 남아 있기에 문화 활동을 추구한다. 다양한 인간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 됨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청소년에게 예술 교육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공감 능력'의 향상에 있다. 가령 국민화가 박수근의 작품을 본다고 치자. 그의 작품에는 십자가도, 예수님도 등장하지 않지만, 서민들의 생활상이 함축되어 있다. 작품을 보며 성스러움은 내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일상생활은 우리를 쉽게 지치고 피곤하게 하지만 자기회생과 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를 날마다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예술은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세계관을 내포한다. 청소년들에게 이런 사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줄 수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문화를 능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은 '공감'을 바탕으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 해주기도 한다. 피터 바잘게트(Peter Bazalgette)에 따

르면, 미국에서는 일반 학생들보다 예술 교육을 두 배 이상 받은 학생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젊은 시절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20퍼센트가 더 높았다고 한다. 영국에서도 문화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작품을 본다는 것은 좁게는 타인의 삶을, 넓게는 시대의 가치를 엿볼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예술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세상을 바라보고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공감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곧 인간적인 존재가 되는 길이라고 말한 리처드 마우(Richard Mouw)의 주장은 새겨들을 만하다.

권순웅의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을 디자인하다>(2020)에 따르면, 팬데믹의 여파로 교회학교는 '쇠퇴를 넘어 소멸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애물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예술의 접촉을 통해 그것의 유익을 발견하고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격려된 문화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모든 문화권으로 가라고 부름을 받았다. 문화명령은 본질상 종교적 의무이다.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에 대해 훈련받는 일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임박한 현실이 되었다. **FAITH & LIF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누구랑 자는지 신경쓰실까?

김병재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과학교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될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신자가 된 게 아니다. 신기한 것은 이와 비슷한 경우가 삶 속에서 매번 반복된다는 것이다. 나는 남편 자격증을 갖고 남편이 된 게 아니며, 아빠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아빠가 되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던져진 것처럼 남편, 아빠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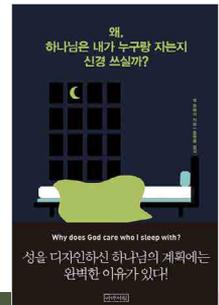
그렇게 주어진 자리 중, 그리스도인 부모가 갖게 되는 무게는 유별나다. 자녀들의 생존을 위해 갖게 된 책무와 더불어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한다는,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와 말씀을 읽거나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며 가정예배를 드린다. 더 나아가 교리 문답을 공부하기도 한다. 어떤 모습이든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 애쓰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나는 가정에서는 부모로, 학교에서는 교사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으니 나의 시간은 다음 세대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나와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 피부로 부딪치고 부딪히는 현상과 문화에 더욱 관심이 많다. 특별히 성(性)이 그렇다. 성교육에 대한 자료나 책이 많다. 학교는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특강이 열리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성교육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다. 보통 다루지는 내용은 동성애

와 같은 특정한 이슈가 중심이 되거나, 남녀의 생물학적인 정보의 나열, 피임이나 성관계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등이다. 생각해 보자. 아이들은 이런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대개 아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시간일 때가 많다. 킁킁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더구나 기독교적인 성에 대해 나누는 것은 더욱 힘들다. 교회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성에 대해 가진 생각은 '고리타분하다'이다. 특히 어른의 입장에서 마치 수학의 공식을 나열하듯 말하는 경우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성에 대한 지침을, 그것도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며 주입하게 되면 관념적 신앙과 같이 관념적 성 개념만이 남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성의 그 깊은 근원을 잃지 않으면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주는 건 녹록치 않은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샘 올베리(Sam Allberry)가 쓴 <왜 하나님은 내가 누구랑 자는지 신경 쓰실까?>(Why does God care who I sleep with?)라는 책은 상당히 반가운 책이다.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솔직한 질문을 피하지 않는다. 뚜렷하고 솔직한 질문은 이 질문을 가졌던 학생들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 자신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쯤 떠올린 질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장의 핵심 질문 중 하나인 '섹스는 몸으로만 하는 거 아닌가요?', 3장의 '그럼 섹스는 왜 하는 건데요?', 4장의 '결혼과 섹스는 무슨 상관인가요?',

《왜 하나님은 내가 누구랑 자는지 신경쓰실까?》 / 샘 올베리, 홍병룡 역 / 아바서원 / 2021



5장과 6장의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고 싶은 성은 뭔데요?’이다. 어쩐가?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관심이 생길 것이다.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저자가 위와 같은 경험적인 질문만을 제시하는 건 아니다. 그는 1장에서 “#MeToo”를 제시하며 성에 대한 사회의 관점으로 글을 시작한다. 중간에 잠깐 제시되는 hookup(Hookup) 문화도 같은 맥락이다. 나는 부모, 교사로서 저자가 제기하는 문제와 방식이 반갑다. 다음 세대와 성에 대한 주제를 나눌 때, 단순한 명제, 질서, 규칙을 던져줘서는 곤란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런 건 관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와 이를 둘러싼 현상, 자신 안에 있었던 정직한 질문들은 다음 세대가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이쯤 되면 “그런 것들만 나누게 되면 걸만 핏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이다.

어떤 책들은 근본에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진행하고 또 다른 책들은 다양한 지점에서 근본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올베리는 후자를 택했다. 그의 그런 선택은 자녀나 학생들과 나누기 좋은 지점이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진정한 사랑’에 대해 말한다.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말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섹스의 의미를 말한다.

“우리는 섹스를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기본적인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의 성은 본래 예수님을 아는 데서 오는 더 깊은 열망, 더 완전한 만족, 더 큰 완성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다.”(217-8 쪽)

나는 현재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다. 처음 단어 조차 어색했던 학생들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유로운 질문과 발표들이 수업을 따뜻하게 한다. 가장 관심이 많은 때에, 좋은 글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을 좀 더 깊게 고민하도록 도울 것이다. 자, 어른들이여. 가까이 있는 다음 세대가 보이는가? 책을 집어 읽고 나누자. **FAITH & LIFE**

 글쓴이 김병재



화성의 은혜동산기독교학교의 교육연구원 및 과학교사이다. 기독교대 안학교연맹 정책위 연구팀으로도 섬기고 있다. 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가을, 선율, 노을 세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다. ACTS에서 기독교교육학 박사과정(Ph.D) 중이다. 신학과 철학, 교육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교사들이 말하는 기독교대안교육>(ACTS교육연구소, 공저)이 있다.

하나님의 길을 가족이 함께 걸으며 배우는 사랑 교육

이진희 (대구 소망교회 사모)

〈길 위의 학교〉의 저자 김상훈 목사는 대학 졸업 후 역대 연봉을 받는 토목기사로 일하며 “공부만 잘하면 된다”, “아내와 두 딸은 내가 버는 돈으로 행복을 누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크게 자리 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둘째 하선이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게 되는 사건을 겪으며 세상적 가치관을 과감하게 던져 버렸다. 저자는 말씀 중심적인 양육을 하게 되면서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행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상훈 목사와 윤정희 사모는 열 한 명의 아이들을 입양하여 겪게 되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깨달은 ‘진정한 그리스도 교육’을 알려준다.

첫째,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 저자는 자녀를 양육함에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확립이라고 한다. 세상에서는 일등이 되라고 가르치며 경쟁을 부추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련하다고 한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은 성공과 부의 축적으로 누리는 개인의 안락한 삶이다. 이러한 세속적인 교육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성공하라는 승자독식의 가치관을 주입한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자녀 삼았다는 말씀을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체득하도록 도와야 할 사명이 있다. 부모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문

화를 사랑하며 성장하기 마련이다.

둘째, 성경적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저자는 하민이를 입양하면서 ‘역설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하민이는 구순구개열로 태어나 두 번의 수술을 하였으며 시력이 좋지 않고 언어 장애가 심했다. 하민이는 병원에서 언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윤정희 사모는 정상인으로 키우겠다고 결단한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주며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니 하민이의 언어 장애는 사라졌다고 한다. 세상의 ‘비정상인’ 개념과 기독교적인 ‘비정상인’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푸코(Michel Foucault)에 따르면, 19세기는 이성(정상) 중심의 사회이다. 환언하면, ‘정상’이 권력이 되는 시대였다. 그 결과, 이성(정상)이 ‘비정상’을 배제하고 격리하고 감금하고 추방하는 사고관이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부정적 이데올로기가 깃들여졌으며, 장애와 질병은 ‘비정상’이라는 부정성을 함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장애나 질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드러내는 약함이다. 장애는 ‘비정상’으로 배제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염려를 부추기는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셋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자녀 양육을 해야 한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육은 나누는 데 있



〈길 위의 학교〉 / 김상훈, 윤정희 / 두란노 / 2019

다고 믿는다. 김상훈 목사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배운 걸 자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실천하였다. 외부의 후원금으로 살아 가난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지만, 가족이 함께 독거 어르신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낸 우리가 진짜 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아이들은 성경적인 부자의 의미를 깨달아 높은 자존감을 지니게 되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실천한 이웃사랑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봉사와 나눔의 자녀 양육은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넷째,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양육이어야 한다. 저자는 아이들을 절대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래서 권위를 벗어나고 자녀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였다. 저자는 자전거 가족 여행에서 아이들과 함께 일정을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김상훈 목사는 일곱 살 된 막내가 그 또래에 비해 비교적 먼 거리를 자전거를 타도록 격려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열 한 명 자녀의 부모로 살아가는 이 순간의 행복을 깨닫는다.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늙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이들과 익어가는 제 삶 안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아이들은 제 인생의 교사이고 스승임을, 제 인생의 동반자임을 고백합니다.”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성장하는 자녀들을 볼 때이다. 그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되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성장이기 때문이다. 〈길 위의 학교〉는 이렇게 오직 말씀 양육을 이야기한다. 부모와 자녀가 ‘신행일치’의 삶을 살면서 함께 사랑하며 성장하는 진솔한 배움의 여정이 감동을 준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에베소서 4:12).

FAITH & LIFE

 글쓴이 이진희



현재 대구 소망교회 사모이다. 서강대 국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 공부했다. 한국아동교육센터 연구원을 역임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이다.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윤태수 (높은뜻씨앗스쿨 수학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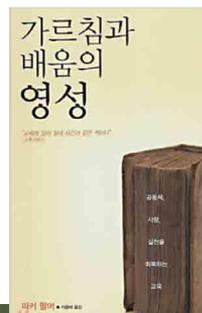
과커 팔머의 <배움과 가르침의 영성>은 현대 시대의 파편화된 개인이 공동체를 꿈꾸어야 하며,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행위를 통해 만들어갈 회복된 하나 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장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에서부터 마지막 장 '가르치는 이의 영성형성'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적 배움과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대가 고도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지식도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조금은 순수하고 깨끗했던 지식이 추구되었다면, 지금은 잘못 사용되면 마냥 변질될 수 있고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식이 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지식의 양날에 대해 깊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자칫 지식만 높아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자신만의 아성에 갇혀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특별히 인상이 깊었던 부분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과 배움의 현 수준 즉, 사실에 입각한 가치관 교육을 몇 번 하는 수준에서 우리의 교육이 멈추어 있다는 지적(20면), 그리고 사랑으로 발원하는 지식이 공동체를 회복하고 유대를 연결하는 방식을 강조한 대목(30면)이다. 이 두 지점이 기독교 교육과 현실 교육의 차이를 가져오는 분명한 지점이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 학교 및 기독교 교육

계에서 경쟁력을 갖출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안다는 것은 "이 찢어진 세계 속의 우리를 다시 온전성으로 불러 주고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엮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 전통이 그것을 세워가고 회복시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객관주의와 지성의 과도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며, 또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지식을 넘어 진리를 바라볼 뿐 아니라 공동체로서 회복을 경험하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지식교육이 팽배할 뿐 아니라 모두가 개인의 성공과 영달만을 바라보고 경주하듯 달려가는 세태 속에 살고 있다. 지식이 더 이상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사고파는 시장이 되어 사랑의 관계가 아닌 계약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식을 넘어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진리를 진리 되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과 기독교 대안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독교 학교 9학년생(중 3)이 되면 아이들은 늘 고민한다. 계속해서 기독교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아



〈배움과 가르침의 영성〉 / 파커 팔머 / 이종태 역 / IVP / 2006

니면 일반 고등학교 과정에 진학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중학생이라는 시기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또 선택의 시기이기도 하다. 이 즈음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지식이 전부는 아니다. 진리가 있고 우리는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매개를 통해 공동체가 되며 함께 자라간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관계 안에서 가르치고 배울 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공동체 세움’이라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과 파커의 저작을 살펴보았다. 다소 어려운 감이 있었지만 요약하고 중심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먼저는 학교의 목표인 ‘그리스도인 지성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파커의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읽어 가면서 아이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하였다. 먼저는 지식의 양면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배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나중에는 팔머가 이야기하는 마음, 사랑, 진리, 공동체, 온전함, 순종, 가르침과 배움의 공간, 세상이 이야기하는 공부와 나의 공부가 다른 점 등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 나갔다. 각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기록해 보고 찾아보는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우리는 왜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며, 왜 기독교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지, 기독교 교육을 통해 어떤 기대와 소망이 두근거리는지를 나누게 되었다. 다소 어렵고 긴 책

이었지만 전달하려는 바가 명확한 책이었기에 나눔은 더욱 수월했던 것 같다.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 나가 세워나갈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상하면서 이 책의 다음 글을 소개하며 마무리하려고 한다.

“기독교 정신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의 주권이 인간의 의식과 실제의 전 영역에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모든 것의 기원에 관한 진실된 설명으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믿는다. 기독교 정신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과 그리고 타인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피조물로 본다. 또한 진리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 실제로로부터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창조 세계의 다양한 면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기독교 정신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계시하며, 따라서 사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한다.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진실된 형태로 발견된다.” FAITH & LIFE



글쓴이 윤태수

높은뜻 씨앗스쿨 교사로서 중고등과정 운영 및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 소재 소명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시작했고 교사 대표를 역임했다.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나는 'HOW' 부모인가? 'WHY' 부모인가?

한경란 (연필심연구소 소장)

“나는 'HOW' 부모인가? 'WHY' 부모인가?” 물음에 답해 보길 바란다. 부모교육을 하면서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많은 육아 서적을 읽어 봤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육아 서적은 나를 죄책감 있는 부모로 만들게 되고, 내 아이를 더 상처받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 아이를 양육하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아이가 대신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숨은 뜻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게리 토마스(Gary Thomas)의 <부모학교>(Sacred Parenting)를 읽으면서 아이들의 관점이 아닌 부모의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면서 결국은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 가는 최고의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세우신 것은 성숙하지 못한 나를 자녀 양육을 함으로써 성숙하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라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양육하면서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나에게 주신 창조 목적을 다시 알게 되었고, 이 책을 통해서 자녀를 더 이해하게 되었으며, 자녀가 나에게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되면서 감사한 시간이었다. 자녀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며 그 자리가 말씀 읽는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출산하도록 명하신다(창1:28).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영

광을 위해 일할 영적으로 민감한 자녀들로 기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두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낳고 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

자녀 양육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기르시는 동시에 부모인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자녀 양육을 통해 우리는 있는지조차 몰랐던 영적인 죄들을 대면하게 되고, 장점인 줄만 알았던 자기 내면의 약점을 지적받는다. 대형차가 쭉쭉 지나다닐 만큼 커다란 구멍이 자녀 양육 과정에서 드러난다. 자녀 양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은 단순히 행동 수정을 피하는 대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필요성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일깨워 준다.

일반적인 자녀 양육 방법론 서적의 문제는 부모의 상태가 차분한 상태라는 가정하에 상벌 차트와 훈육 지침을 작성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모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차분하고 평온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가 남아 있다고 가정하지만, 자녀 양육의 현실을 보면 초고속 게임에 가깝다.

자녀 양육의 기술에서 경청 훈련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아주 좋은 영적 훈련이 된다. 경청은 자녀 양육에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임을 일깨워



〈부모학교〉 / 게리 토마스 / 윤종석 역 / CUP / 2007

준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길을 잃을 것이다. 감사 기도는 내 자녀 양육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 주었다. 나는 하나님께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 간구하는 중보 기도보다 감사하는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애쓴다. 아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인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특성들을 뽑아보며 감사를 느낀다. 신성한 자녀 양육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두려워도 용감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설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빛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단 자녀 양육에서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숙할 수 있다.

신성한 자녀 양육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는데 필요한 용기라는 성품을 우리 안에 길러 준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그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을 나는 마음 깊이 안다. 자녀들은 부모의 참을성 없음과 자기중심적 좌절을 폭로해 주거니와 그것은 우리 마음에 거울을 대주는 것과 같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듯이 자녀 양육도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 준다.

우리는 자녀 양육의 가장 피곤한 면들을 우리를 참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자녀를 기르는 힘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흠모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신성

한 자녀 양육은 짧은 우리 인생에서 미래 세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일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부른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금방 잊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의 신성한 위탁을 수용하자. 우리는 자신이 비교적 대단치 않음에 근거해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결국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야 한다. 〈부모학교〉는 자녀 양육이 최고의 영성 훈련이라고 밝히면서 세상의 목적인 단순한 양육 중심이 아닌 부모 중심적 양육과 영성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 책은 자녀 양육의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가치와 정신을 부모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 준다.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빛으신 존귀한 자녀로 생각하는 믿음의 부모에게 이 책은 은혜로 다가올 것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한경란

연필심연구소 소장이다. 빅파더연구소 부소장, 한국마음코칭협회 회장, 한국색채분석협회수석연구원, 부모교육전문가, 색채 심리사, 색채 분석사, 아로마테라피스트심리조향사, 감정코칭, 인성교육, 성경적 성교육 질문디자이너, 대구대 산학협력교수이기도 하다. 그동안 연세대, 숙명대, 명지대, 강원대, 전주대, 경성대, 관동대, 이화여대, 서울신대에서와 학부모교육 특강에서 300회 이상의 강연을 했다.

사천교회 <온라인 부모교육 세미나>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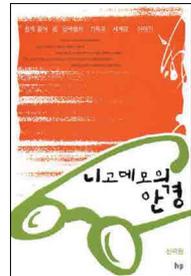
최중식 (사천교회 부목사)

온라인(ZOOM) 부모교육세미나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라!

니고데모의 안경 기독교 세계관 강의	10월 9일 토요일 아침 10-12시
	신국원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 홍신대학교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화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철학박사, 홍신대학교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사천교회 교육위원회는 2021년 10월 9일에 교회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온라인 부모교육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사천교회는 공적 예배 외에 모든 오프라인 소그룹 모임과 현장 교육을 중단한 상황이었다. 주일 분반 공부를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 주었는데, 교회 내의 소그룹 모임 중단은 교회 교육에 큰 어려움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19’ 상황은 교회 교육의 무게중심이 주일학교 교사에서 학부모로 옮겨져야 할 당위성을 절감하게 해주었다.

<온라인 부모교육 세미나>는 부모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 모든 참가자는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평소 시력이 좋지 않아서 사물과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없을 때,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어렵기에,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력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추고, 안경을 쓰는 순간 세상이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며, 흐릿했던 사물과 사람과 세상이 명확하게 보여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는 교훈을 다시 배웠다.



2시간 동안 줌(ZOOM)으로 진행된 해당 주제의 기독교 세계관 강사 신국원 교수님(홍신대 명예교수)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 강사 교수님께서서는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간증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들려주심으로 모든 참가 부모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세미나에 참여한 25명의 부모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했지만, 세속적 가치관에 몰들어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 자녀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따라갔던 교육 열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 부모교육 세미나>에 참여했던 부모들 중, 기독교 세계관 후속 교육에 대해 요청하는 분들도 있었다. 따라서 2022년 사천교회 교육위원회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독교 세계관 후속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준비 중에 있다. **FAITH & LIFE**

사천교회 <온라인 부모교육 세미나> 소감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자녀 양육의 지혜를 얻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온라인 부모교육 세미나>는 강사 교수님께서 어려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개인적 삶까지도 공유해주셔서 더욱 마음에 울림이 있던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항상 내 삶과 뜻이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동참하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약속을 생생하게 바라보고 믿으며 내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지금의 내게 꼭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또한 영화 <하녀>라는 작품의 주인공이 마치 나 같아서 흥미롭게 보았다. 내던져진 야채들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하기 싫어하는 표정으로 멍하게 앉아있는 여인은 바로 나였던 것 같다. 또 다른 영화 베르메르의 작품을 통해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정성으로 기쁨으로 하는 기쁨이 느껴지는 '하녀'의 모습이었는데, 진정한 품위란 내가 가진 지위나 소유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주를 섬기듯 하는 내적인 열정과 성실에서 온다는 배움도 있었다. 강의 덕분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왜 내게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내 자녀의 삶을 기독교적 세계관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돕는 일은 다른 차원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강사 교수님께 기도로서만이 아닌, 내 아이를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잘 키우기 위한 실제적 양육 방안이 무엇인지 여쭙어보았다. 강사 교수님은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오히려 그 말씀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인인 나 자신조차 세상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종종 타협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기 마련인데, 아이에게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면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다면 오히려 불신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는 깨달음도 얻었다. 부모가 먼저 더 거룩하여지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세상 가치관과 싸우고, 늘 깨어 있는 삶처럼 효과적인 자녀 교육 방법은 없을 것이다. 강사 교수님께서 장성한 자녀를 두고도 기도하면서 씨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큰 위로가 되었다. 한번 밖에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참된 진리를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하고 아이가 어떤 영역 불모지에서 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제 땅끝 소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에게 늘 치이고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느껴져, 내가 '하녀'가 아닌가? 나는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많았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품위를 잃지 않는 하녀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우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섬기고 배려하는 자리,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고 스스로 빛이 나지 않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자리에 있고 싶다. 기도하는 부모를 이기는 자녀가 없다고 하신 대목도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었다.

 글쓰기 이보라



경남 사천교회 서리 집사이다. 류창길 집사의 아내, 은찬, 은총이의 어머니며 주일학교 영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I) - ‘세계관’이란?



19세기 말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칼뱅주의 부흥 운동은 오늘날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직접적인 원천이다. 칼뱅주의는 ‘삶이 곧 종교’(life is religion)라는 원리에 따라 문화를 성경의 진리에 따라 변혁하려는 열정을 특징으로 한다. 그 전통을 되살려내려는 운동의 중심에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있었다. 그는 네덜란드인 평균 신장보다 ‘작은’ 사람이지만 정통 신앙을 회복시킨 영적 ‘거장’이었다. 더 큰 업적은 그 신앙에 함축된 문화 변혁적 세계관을 드러내어 삶을 바꾼 실례를 남긴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 논의도 그 역사를 본받아 삶을 성경의 진리에 더 부합하도록 만들려는 실천적 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을 4회에 걸쳐 소개하기로 한다.

세계관은 명료하게 의식되거나 체계적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독특한 세계관이 기독교 전통 속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울은 당대의 세계관을 본받지 말고 변화된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을 당부했다(롬12:1-2). 또한 비기독교적 사상과 이론을 격파하는 동시에 이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가져오게 해야 한다는 두 과제가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을 역설했다(고후 10:5).

이는 특히 초대교회의 여러 지도자처럼 철학적 훈련을 받은 지식인이 개종할 경우에 반드시 수반되었다. 터툴리안, 클레멘트, 어거스틴이 그 사례이다. 그 후로도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나 장 칼뱅(Jean Calvin)이 그랬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서 카이퍼 같은 지성인들은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적 함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려 씀씀했다.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려는 노력은 이론적 관심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이다. 비기독교적 세계관과의 싸움은 기독교 문화라고 여겨질 수 있던 중세에서도 계속되었다. 이 싸움은 르네상스와 근대 계몽사상 이후에는 더욱 격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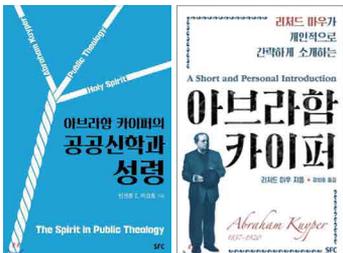
네덜란드 자유대학교 건물

기독교 세계관 논의가 각 시대의 주도적 사상이나 문화적 상황과 연관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대의 세계관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답습하는 것에서 그친 일은 없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났다. 물론 기독교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끼어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수 백 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닌 서양철학의 개념이나 체계나 세계관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진리를 표현하는 '지적 도구'만은 아닐 수 있다. 그것들은 단순한 형식을 넘어서 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논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철학적 개념을 빌어 기독교 진리를 논의하려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기독교 세계관 논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기독교 세계관 논의에 있어 유의할 점은 기독교 세계관이 그리스도인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세계

관'이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 세계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계관'이라는 개념은 서양 사상에 오랜 뿌리를 두고 발전한 개념이다. 서양철학은 '봄'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이데아'를 도출한 플라톤 이래 '관점'을 늘 중요하게 생각했다. 물론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회자되기 시작된 것은 18세기 서양 철학에서이다. 특히, 그 용어가 독일의 낭만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역사적 상대주의'의 함축을 갖게 되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세계관'이라는 말은 세계에 대한 하나의 견해 또는 관점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부각될 수 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보기에 달렸으며 관점은 개인적이고 시대적이며 사적이면서 역사적 조건에 의해 신빙성이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가 내포될 수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2022년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 간담회(2차)



<2022년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 간담회(2차) 안내>

주제: "나의 일터 이야기"
일시: 4월 30일(토) 저녁 8시
장소: <https://vo.la/q4Gmi> (Zoom)
주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독교학술연구회)

- 참석 대상자

고휘영(연세대 법학과 교수), 권태형(경희대 K-컬처스도관연구소 학술행사연구교수), 김홍근(연세대 기계학과 교수), 황재경(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이창훈(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교수), 안승범(경희대 국문과 교수), 양정아(성안대 특임교수, 교육철학, 상운대 Ph.D), 임준희(성원대 기독교대학 교수), 임종원(부산대 물리학과 교수), 최재환(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 김영호(MokdongRocks, 데이터 사이언스(AI, KAIST Ph.D), 공명현(서울대 물리학과 연구원(포닥)), 이은종(연세대 Ph.D), 문석영(LG 화학연구소 연구원, 재료공학, 포항공대 Ph.D), 박승진(서울대 생물과학부 연구원(포닥), 서울대 Ph.D), 시나영(백석대 강사, 기독교철학, 대 남동성신학교원 Ph.D), 서주희(Deveborah Clinic, FoodPOC, 생명과학, KAIST Ph.D), 오연희(스마트소재융합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생명학, 그리고대 Ph.D), 안유환(카카오브레인, 생명과학공학과 AI 전공, KAIST Ph.D), 이은희(기독교교육연구소 정회원(교목, 교육학, 복신대 Ph.D), 안재호(성서신학연구소 연구소, EEWIS 전공, KAIST Ph.D), 최성희(기초과학연구원 연구원, 입자물리학, KAIST Ph.D), 황근희(성원대 강사, 교육철학, 성원대 Ph.D), 홍유익(안성대학교 연구원, 우주물리학, KAIST Ph.D), 홍승준(서울대 강사, 기독교교육학, 프랑수아-아베르 대학 Ph.D), 홍지희(성원대 겸임교수, 교육철학, 성원대 Ph.D), 최성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화학, KAIST Ph.D), 최우성(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계공학/AI, 서울대 Ph.D).

- 참석적 모임 내용

1) 전체 인사 나눔, 2) 나의 일터 이야기(영제), 3) 간단한 추천 도서 및 독서 나눔 모임 영제



'2022년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 간담회'(2차)가 '나의 일터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난 4월 30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온라인(Zoom)에서 있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다양한 전공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진 학자들이고, 둘째는 기독교 세계관적 학문 연구와 대중운동의 가치를 공감하는 분들이다. 현재 전체 구성원 27명 가운데 30대 학자가 17명이나 되어, 다음 세대 동역자를 위해 기도해 온 선배 학자들의 가슴을 벅차게 했다. 모임의 시작은 소식을 듣고 찾아와 격려와 응원의 말씀으로 이 '간담회'의 가치와 의미를 더 빛나게 해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선배 학자들의 순서였다.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동역회 이사장), 장수영(포항공대 산업공학과 교수, 동역회 이사), 최태연(백석대 기독교 철학 교수, 동역회 이사), 박동열(서울대 불어교육과 교수, 동역회 실행위원장), 박문식(한남대 기계공학과 교수, 기독교학술연구회 학회장).

지난 1월 22일 첫 간담회 때는 자기소개로 모두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그쳤으나,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공이 다른 일곱 분의 학자가 약 6분씩 자기 연구 분야와 그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나누며 함께 질의응답을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세상과 신앙의 영역으로 이원화하지 않기에, 고민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아래의 순서로 모두 다른 전문 영역에서 어떻게 각자의 삶과 신앙의 일원화를 치열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복된 자리였다. 안승범(경희대 국문과 교수, 문화콘텐츠), 류제경(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생물물리학), 홍성욱(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우주론), 고철용(한남대 교수, 민법학), 서나영(백석대 강사, 예술철학), 이유환(Kakao Brain, AI Researcher), 양정아(한양대 특임교수, 교육철학). 다음 3차 간담회는 7월에 있을 예정이며, 5월부터는 함께 선정한 2권의 책을 가지고 격주로 독서 나눔 모임도 시작하였다.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완전한 진리>(내시 피어시), 그리고 '과학과 신앙'과 관련된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알리스터 맥그래스)이다. **FAITH & LIFE**

<신앙과 삶> 독자 한마디

<신앙과 삶> 3+4월호 | 특집: 웨슬리 웨스트워스와 한국 기독교 지성 운동

• 한국인 웨슬리 웨스트워스 선교사. 그가 지난 57년간 한국에서 자비량 선교사로 바울처럼 씨뿌리고 실천하신 '신앙과 삶'의 열매인 한국 성도들. 그들이 모두 이제 삶의 현장에서 '자생력 있는 일터선교사'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 김동연 (솔로몬일터교회 담임목사)

• 웨슬리 선교사님을 서울대 간사 사역 시절 몇 번 보았던 기억이 있다.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자리였다. 다시 이 번 특집을 통해 조용하고 섬세하게 일하시고, 기독교 지성을 깨우는 자리에서 한결같은 수고와 섬김을 보여주신 선교사님을 만나 반가웠다. - 김수봉 (CCC 간사)

• 한국교회가 든든히 선 이유는 웨슬리 선교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 김중현 회장님(ES 그룹)의 글에서 선교사님의 고집스러운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자비량 선교사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 조금은 알기에 자신의 천국 길까지 준비해 둔 꼼꼼함에 목이 매인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라는 말씀을 되새긴다.

- 모상근 (청함교회 담임목사)

•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독서토론을 통해 입문한 기독교 지성에 관한 호기심은 '복음주의' 교회 속에서 일상의 신앙을 고민하며 살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이번 호는 기독교 지성 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원아삼 선교사님의 노력을 보며 배움이 다른 이름을 갖은 내게 다시 신앙실천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이원삼 (한국평가데이터부장, 청주 상당교회 집사)

• 2006년 웨슬리 선교사님을 처음 본 날 주신 첫 질문은 "왜 기독교교육이냐? 기독교학교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만날 수많은 난관 앞에서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도록 꺾대를 분명히 세우란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평생을 사신 선교사님에게 "수고했다!" 위로하시고 여생도 친히 품어주시길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기도한다.

- 이정연 (높은뜻씨앗스쿨 교장)

• 웨슬리 선교사님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종이요 봉사자로 기억되길 바란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과 신실함으로 매 순간 충성하는 기독교 교육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성찰하게 된다.

- 신현정 (충신대 유아교육과 교수)

• 양승훈 총장님(에스와티니 기독교대) 글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붙일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이 유독 시선을 끌었다. 웨슬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같이 나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칭만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 조현미 (가야대 간호학과 교수)

• 이번 호에서 여러 사람이 웨슬리 선교사님을 회고하는 글들의 공통점은 '평범함 속의 비범함'이 아닐까 한다. 몇 해 전 '기세동' 신년 하례식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 빙긋이 웃고 계시던 선교사님의 단아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갖지 않은 청년자의 모습'으로 내 마음에 남아있다. - 양희석 (국립한국교통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웨슬리 선교사님의 기뻐 특집을 통해 은혜와 진리의 발자국을 보았다. 예수님과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곁어가는 발자국, 그가 알리고 전하는 책들을 통해 각자의 삶에 전공을 녹여 만들어내며 곁어가는 발자국, 그리고 선배들이 곁어간 발자국을 보며 걷는 발자국. - 정동영 (한국외국어대학교교회 담임목사)

• 웨슬리 선교사님을 <종교적 중립성 신화>라는 책이 번역될 수 있게 소개해주신 분으로만 알았었다. 그런데 이번 호를 통해서 한국에 오신지 이미 50년이 넘었고, 줄곧 수많은 한국의 지성에게 책을 통해 복음을 전해오셨음을 알고 실로 놀랐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인이 되셨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 최병진 (춘천 중부교회 간사, 前 ESF 간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11133>,

〈선교신문〉 <https://missionnews.co.kr/news/583521>,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605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신입 이사 등 서울시 교육청 승인

박문식 (신임 이사, 한남대 교수, 2022. 04. 02 ~ 2026. 04. 01)

조성표 (연임 이사, 경북대 교수, 2022. 04. 02 ~ 2026. 04. 01)

최태연 (연임 이사, 백석대 교수, 2022. 04. 02 ~ 2026. 04. 01)

‘2022년 그리스도인 소장학자 간담회’(2차)

지난 4월 30일(토),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후원하는 ‘2022년 그리스도인 소장학자 간담회’를 온라인(ZOOM)에서 ‘나의 일터 이야기’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27권 1호 발간

2022년 3월 31일 발간된 <신앙과 학문> 27권 1호에는 정교진(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논문 등 총 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양승훈(EMCU 총장),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최현일(샘병원 의사),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그소서원 대표),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예원(M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재완(서울대 인류학과 조교),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황혜원(청주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오민용(스마트스디지탈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경민(전남대 교수, 전기공학),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로스쿨),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곤(한동대 교수, 국제어문학), 신응철(동아대 교수, 서양철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교육철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Paul Lim(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교수, 신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현창기(한동대 교수, 생명과학)



▶ VIEW(전성민 대표)

1)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기 바란다.

2) 2022년도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학교설명회(문의 및 신청: viewinkorea@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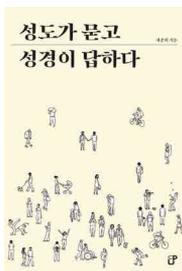
- 일시 & 장소 : 2022. 6. 27.(월) 오후 6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3길 15 산성빌딩 104호

▶ CTC(유경상 대표)

15년 동안 꾸준히 운영해 온 CTC 어린이세계관캠프가 이번 6월(4주 과정)에 북미주에 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북미주 지역에 사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신청 문의 : 010-3673-8439).

- 어린이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독교세계관학교인 '하이세 아카데미'가 3월부터 개교하여 16가정, 26명의 아이들이 매주 교육받고 있다. 6월부터 가을학기 신입생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재를 공부하는 '3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22명)과 어린이세계관교육을 준비하는 '2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과정'(9명)이 3월부터 개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전 교육 프로그램인 온라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가 3월부터 '기독교세계관으로 그리스로마 신화 읽기'라는 주제로 진행 중이다. (수시로 회원 가입이 가능).
- 아신대학교 '기독교세계관' 수업이 3월에 개강하여 진행 중이다.
- 삼일교회(송태근 담임목사)에서 '5기 부모세계관학교'가 3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삼일교회 어린이세계관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성광교회(남세주 담임목사)에서 '성광교회 어린이세계관학교'가 4월부터 진행 중이다.
- * 문의/신청: CTC 사무국(010-3673-8439) &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로 연락 바란다.
- * 2022년도에도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세대 세우기'를 목표로 하는 CTC 사역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차준희 지음 | 312쪽 | 16,000원 | CUP

흥미로운 질문,
핵심을 찌르는 명쾌하고 선명한 답변

저자는 구약학자 차준희 교수(한세대)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사회 이슈, 삶에 대해 궁금해하는 37개의 질문에 대해 신학자로서 성경적, 신학적으로 정련된 답변을 제공한다. CBS 올포원에서 방영된 내용이니 만큼 정련된 질문과 압축되고 핵심을 꿰뚫는 선명한 답변이 제공된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게리 토마스의 인생 학교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 미혼을 위한 <연애학교>, <결혼수업>
- 부모를 위한 <부모학교>, <부모영성학교>
- 부부를 위한 <부부학교>, <부부사랑학교>, <행복한 결혼학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정보고 (2022년 3월, 4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2년 3월	2022년 4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2년 3월	2022년 4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620,000	570,000	인건비	일반급여	5,100,000	5,100,000	
	임원회비	460,000	1,08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5,489,500	5,381,000		소계	5,500,000	5,500,000	
	기관후원금	3,500,000	3,6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421,449	380,280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326,740	225,540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8,840	13,540	
	VIEW후원금	1,380,000	1,175,000		소모품비	4,000	16,800	
	기타후원금	0	0		비품	0	0	
	월보구독료	675,000	345,000		식비	249,000	355,200	
	학술지원금	0	0		수선비	0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623,880	653,810	
	기타	432,700	50		퇴직연금	394,510	249,08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여비교통비		20,000	10,000		
			서무비		157,300	132,000		
			기타(지급수수료)		190,981	155,012		
			소계		3,301,700	3,096,262		
	소계	12,617,200	12,211,050					
기타수입	일반이자	5,978	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1,125,265	1,155,265	
	법인세환급금	0	23,170	소계		1,184,990	1,214,990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917,790	3,738,966	
	기금차입	0	0		발송비	0	626,79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0	0	
	예수금	346,850	413,180	소계	917,790	4,365,756		
				0	세금	60,570	92,660	
			잡비		300	300		
			소계		60,870	92,960		
	소계	352,828	436,35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0	0	
	소계	0	0		소계	0	0	
학회	학회이사회비	160,000	120,000	학회	학회장소사용료	0	0	
	학회행사수입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0	0	
	학회지판매	0	0		학술지인쇄비	0	2,703,567	
	학술지심사비	0	0		학술지발송비	0	782,960	
	학술지계재료	3,700,000	0		학술지심사료	950,000	0	
	저작권료	0	0		학회조교비	0	0	
	학회기타수입	0	0		학회기타	36,000	0	
	소계	3,860,000	120,000		소계	986,000	3,486,527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0	971,50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 미수금	971,500	1,154,740	
	전월 이니시스입금	0	6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60,000	55,000	
	소계	0	1,031,500		소계	1,031,500	1,209,740	
당월 수입액		16,830,028	13,798,900	당월 지출액		12,982,850	18,966,235	
전월 이월액		41,245,582	45,092,760	차월 이월액 (잔액)		45,092,760	39,925,425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 우측 회원후원 명단에는 VIEW후원과 CTC후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명예 이사장
편집장	신국원	충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송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반석



김유준



김혜정



문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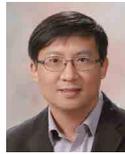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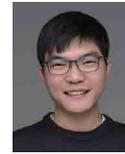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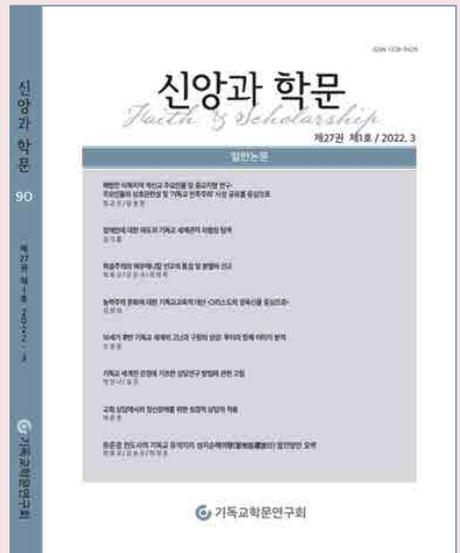
신앙과 학문

논문 투고 안내

<신앙과 학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과 학문>에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로 다양한 학제간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50일 전입니다. (각호 투고마감일: 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 2021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상 세 안 내.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기독교학문연구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일 반 문 의. gihakyun@daum.net(사무국, 학회) 02-754-8004

학술지문의. faithscholar@naver.com(투고, 심사) 02-3272-4967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